



## Article

# Seo, Mi-Hwa, Choi, Gigi and Lee, Seon (2022) Teaching travel literature through intertextuality within Yeonhaengnok: critical responses to 'Yeolha Ilgi' in later Yeonhaengnok

Seo, Mi-Hwa, Choi, Gigi and Lee, Seon

Available at <http://clock.uclan.ac.uk/41819/>

Seo, Mi-Hwa, Choi, Gigi and Lee, Seon (2022) Teaching travel literature through intertextuality within Yeonhaengnok: critical responses to 'Yeolha Ilgi' in later Yeonhaengnok. *Classical Literature and Education* . pp. 95-141. ISSN 1598-7108

It is advisable to refer to the publisher's version if you intend to cite from the work.  
10.17319/cle.2022..49.95

For more information about UCLan's research in this area go to <http://www.uclan.ac.uk/researchgroups/> and search for <name of research Group>.

For information about Research generally at UCLan please go to <http://www.uclan.ac.uk/research/>

All outputs in CLoK ar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ncluding Copyright law. Copyright, IPR and Moral Rights for the works on this site are retained by the individual authors and/or other copyright owners.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of this material are defined in the [policies](#) page.



# 연행록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기행문학 교육 연구

-후대 연행록의 『열하일기』 수용 기록을 중심으로-

서미화, 최지지, 이지선\*

## <차례>

1. 서론
2. 연구 방법 및 대상
3. 『열하일기』 수용 기록에 나타나는 기행문의 상호텍스트성
  - 1) 기술(記述) 내용의 수용·생산: 경험의 공유와 체험의 확장
  - 2) 논평(論評)의 수용·생산: 논제의 공유와 사유의 자기화
4.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기행문 수용·생산 교육
  - 1) 사실적 정보의 수용·생산: 공간 중심의 집단지성 형성
  - 2) 사유의 수용·생산: 공간 중심의 문화적 기억 형성
5.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연행록의 수용·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기행문학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자신의 연행 기록에 인용한 텍스트들을 분석하였다. 『열하일기』 인용 텍스트에는 ‘연행’이라는 공통 경험을 매개로 한 상호텍스트성이 드러난다. 이는 후대 연행자들

\* 서미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제1저자/ 최지지, 센트럴랑카셔 대학교 휴머니티, 언어, 글로벌 스터디 대학(School of Humanities, Language & Global Studies) 조교수, 제2저자/ 이지선,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교신저자



이 『열하일기』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공유·확장하는 수용·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지리·풍속 등에 대해 기술한 정보를 받아들인 텍스트에는 경관 구경, 일상 및 풍습, 연행사로서의 공적 체험 등을 선행 텍스트와 공유하면서 비교·확장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경세론과 대청의식 등 논쟁적 주제에 대한 논평 수용 텍스트에는 연암이 포착한 청의 문물과 제도, 정치적 상황, 조선의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면서, 논지의 초점을 다른 부분에 두거나, 다중 인용하거나, 텍스트를 논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제를 자기화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같은 공간을 여행하면서 사실적 정보를 수용·생산하는 필자들이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공간에서 촉발되는 사유를 중심으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열하일기, 인용 텍스트, 상호텍스트성, 기행문학 교육

## 1. 서론

### 1) 연구 목적

본고의 목적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인용한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여 기행문학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행록의 필자들은 전대 연행록에 대한 독서를 통해 ‘연행’이라는 공통 경험을 매개로 자신의 체험과 사유를 공유하고 확장하였다. 이들은 전대의 연행록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근거로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강화하고 인식과 사유를 확장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일부 필자들은 자신의 연행록에서 이후의 독자들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렇듯 적극적인 향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용(『열하일기』 독서)-생산(이후의 독자들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연행록

집필) 구조는 지금의 기행문학 향유 과정과도 다르지 않다. 『열하일기』 인용 텍스트에 내재된 상호텍스트성에는 후대 연행자들의 수용·생산 과정이 드러나므로, 이를 기행문학의 수용·생산 교육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전번역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열하일기』를 인용한 연행(燕行) 텍스트를 수집하여 수용·생산 관점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김선민(金善民, 1772~1813) 『관연록(觀燕錄)』,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신태희(申泰羲, 1800~1850) 『북경록(北京錄)』, 박사호(朴思浩, 1784~1854) 『심전고(心田稿)』, 한필교(韓弼教, 1807~1878) 『수사록(隨槎錄)』, 김경선(金景善, 1788~1853) 『연원직지(燕輶直指)』, 이우준(李遇駿, 1801~1867) 『몽유연행록(夢遊燕行錄)』, 서경순(徐慶淳, 1804~?)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김진수(金進洙, 1797~1865) 『벽로집(碧蘆集)』 등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홍대용 『연기』, 김창업 『연행일기』와 함께 연행록 삼가(三家)로 꼽힐 만큼 19세기의 연행자들이 열독하였던 텍스트로, 후대 연행록의 곳곳에 인용되었다. 특히 『열하일기』는 공무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이전 시기의 연행록들과 비교하여, 연행 체험에 대해 문학적으로 접근한 시작점으로 평가되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후대 연행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글이기도 하다.<sup>1)</sup>

후대 연행록의 필자들은 『열하일기』에서 자신의 경험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여행 경험을 구체화하거나, 연암이 피력한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며 의론을 펼친다. 이 연구에서는 연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험과 관찰을 하였던 연행록 필자들이 『열하일기』의 독자로서 선행 텍스트의 어떠한 부분에 주목하였는지, 이를 자신의 저술에 어떻게 드러내었는지를 살핀다. 이를 위해 자신의 글에서 『열하일기』에 드러난 견문과 감상, 사유와 주장을 인용하며 연암의 시각과 세계관을 적극적인

1) 김현미, 「18세기 한문 산문 연행록 속 '풍속' 요소의 인지와 범주」, 『漢文古典研究』 33-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 드러난 독자로서의 경험과 인식, 사유가 확장되어 나가는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열하일기』 인용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피기 위해, 여기서는 『열하일기』와 다른 연행록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보고자 한다. 연행은 노정과 절차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므로, 다수의 연행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풍속이나 문물들이 있다. 여기에 주목한 연구들은 연행 노정, 연행사로서의 경험, 대청의식 등을 비교하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소재나 경험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sup>2)</sup> 이에 수행원들이 주목한 청의 이국적인 풍속·문물과 이에 대한 작가들의 감상·비평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안시성, 명산 유람, 창루 풍경, 천주당 방문 등 복수의 연행록에 등장하는 소재를 중심으로 논의한 이 연구들은 공통 소재에 대한 묘사나 인식 등을 비교하였다.

2) 관련된 연구로는,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韓國漢文學研究』 51, 한국한문학회, 2013; 신익철, 「조선후기 연행사의 중국 명산 유람 양상과 특징」, 『泮橋語文研究』 40, 반교어문학회, 2015; 신익철, 「연행사와 양한적(養漢的)-역관·사상이 접한 중국의 창루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안시성(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漢文學報』 31, 우리한문학회, 2014; 김정경, 「18세기 한글본 연행록 연구 - 정녀묘와 천주당 건문기록을 중심으로 -」, 『淵上古典研究』,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을 들 수 있다.

신익철(2015, 2017)은 각각 조선 후기 연행록 22종을 비교하여 연행사들의 중국 명산 유람 양상을 살피거나 역관과 연행사가 관찰한 중국의 창루(娼樓) 풍경에 대해 밝혔다. 김세호(2014)는 중첩되는 연행 노정에서 안시성(安市城) 전투의 무대인 봉황성(鳳凰成)을 ‘연행에 대한 기록이 집적됨에 따라 주목되는 특정한 공간’으로 보고, 연행 기록을 통해 안시성(安市城) 전투가 우리 역사에 전면으로 부각되는 동시에 이 전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정경(2016), 신익철(2013) 등은 연행 과정에서의 서양인 선교사와의 만남, 천주당 방문과 같이 연행을 통한 낯선 문화와의 대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행록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확보하려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도 있다.<sup>3)</sup> 김유경은 한문으로 기록된 연행록, 가사 및 한시집 유득공의 『연대재유록』(1801), 작가 미상의 『부연일기』(1828), 박사호의 『심전고』(1828~1829), 김경선 『연원직지』(1832~1833), 서경순의 『몽경당일사』(1855~1856), 김지수 『서행록』(1828), 홍순학의 『연행가』(1866), 유인목의 『북행가』(1866), 작가 미상의 『계산기정』(1803~1804) 등 아홉 편의 18세기 연행 문학을 분석하여 당대 조선 선비들이 가졌던 연행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연행을 통해 접한 청의 문물을 인식하는 양상을 살폈다.

연행록의 필자들은 동시에 다른 연행록의 독자였다. 이들은 전대의 연행록을 참고하여 자신 경험에 적용하고, 이전에 쓰인 연행록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고 인식과 사유를 확장하였다. 김명호는 『연원직지』의 저자 김경선이 자신의 연행록에서 김창업의 『연행일기』·홍대용의 『연기』·연암의 『열하일기』를 발췌하고 여기에 스스로의 소견을 덧붙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열하일기』를 빈번히 인용하고 연암의 관찰력과 식견 및 사실적인 묘사에 찬탄을 표하는 부분이 많은 점은 후대의 연행록들에 끼친 『열하일기』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논하였다.<sup>4)</sup> 허방은 철종 대(철종1년~14년, 1850~1863)에 창작된 한문 산문 연행록들이 『열하일기』의 내용적, 사상적, 문체적 특징을 계승

3) 관련하여,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泐上古典研究』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정훈식, 「조선후기 燕行錄에 기록된 청대 風俗 인식의 추이 : 김창업·홍대용·박지원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87, 한국문화학회, 2021; 최식, 「텍스트로 바라본 연행과 연행록-연행의 체험과 향유」, 『大東文化研究』 8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최식, 「연행 지식·정보의 수집·정리 및 확대·재생산 - 연행록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75, 동방한문학회, 2018; 최식, 「『열하일기(熱河日記)』와 법고창신(復古創新)의 실체(實體)-삼액(三厄)의 기원(起源)과 변모양상(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회, 2019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식은 “연행록을 비롯한 연행과 관련된 저술은 모두 텍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시각을 공유한다.

4) 김명호, 「연행록(燕行錄)의 전통과 『열하일기(熱河日記)』」, 『韓國漢文學研究』 11, 한국한문학회, 1988.

한 양상을 고찰하였다.<sup>5)</sup> 19세기 후반(철종시대) 연행록의 문예적 특징을 규명하고 한중 문화 교류를 역사적·문화사적 관점에서 탐구한 이 연구에서는 이 시대의 연행록이 전대의 연행록 중 특히 『열하일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이 시기의 연행록들이 많은 부분에서 『열하일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열하일기』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경우 고증의 대상으로 삼아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적으로 논증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임영길의 연구에서도 19세기 전반의 연행록들이 『열하일기』에 담긴 다채로운 내용과 사유 양식을 폭넓게 계승하면서 변용을 시도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보았다.<sup>6)</sup>

연행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이들 텍스트 사이에서 생성되는 상호텍스트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sup>7)</sup> 『열하일기』와 같이 이후의 연행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특히 그러하다.<sup>8)</sup> 연행록의 이러한 전통이 보여주는 상호텍스트성은 오늘날의 문학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종철은 중세 기행문학의 생산과 수용 양식이 세대를 거쳐 거듭되며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따라서 ‘기행문학 교육이 기행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활동 자체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경선의 『연원직지』를 선행 기행문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산물로 일컬으며 교육적 범례로서의 중세의 기행문학이 가지는 상호텍스트성 재조명하고자 하였다.<sup>9)</sup> 이는 이 연구에서 기행문 감상의 소통과 재생산의 역할, 이러한 전

5) 허방, 「철종시대 연행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6) 임영길, 「19세기 전반 연행록의 특성과 한·청 문화 교류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 최식(2018)에서는 연행록의 기록화의 양상에 주목하였는데, 연행록을 통해 연행에 참여한 수행원과 이들과 교류한 인물들의 지식·정보가 수집·정리되고 나아가 확대·재생산되는 연행록의 상호텍스트성을 ‘열린텍스트(Open Text)’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설명하였다.

8) 『열하일기』를 자신의 저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저작 양상은 『연원직지』, 『북경록』과 같은 연행록뿐만 아니라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세유표』 등 다양한 장르와 목적의 글에서 발견된다. 이는 『열하일기』가 가지는 지속적이고 광범한 영향력을 시사한다.

통이 반복되며 형성하는 문화적 맥락에 문학교육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주재우는 『열하일기』를 오늘날 문학을 통한 ‘경험’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행문학의 감상과 의미 도출, 즉 독서를 통한 수용과 재생산에 주목하였다.<sup>10)</sup> 교육적 측면에서 연행록에 주목한 다수의 연구는 연행문학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방증한다.<sup>11)</sup>

## 2. 연구 방법 및 대상

### 1)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고전번역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열하일기』를 읽고 자신의 연행 기록에 인용한 글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자 3명이 함께 자료를 수집, 검색,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타당화하는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열하일기』 독서 경험이 드러나는 텍스트들을 검색하여 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고전번역원

9) 김종철, 「중세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10) 주재우, 「고전기행문학과 경험 교육-『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11) 이외에도 연행록을 비롯한 고전 기행문학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로 김성룡, 「박제가 기행문의 문예 미학 연구-기행문 교육의 심화를 위하여」,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백순철, 「여행체험 고전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의의」, 『비평문학』 37, 한국비평문학회, 2010; 김미선, 「선조들의 금강산 기행문학과 그 교육적 활용」, 『어문논총』 35,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등이 참고되었다. 김성룡(2006)은 박제가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감상, 여정, 건문에 집중하였던 이제까지의 기행문 교육이 미학적 측면에서 보다 심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백순철(2010)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여행문학의 특징과 교육적 의의를 논하였는데, 특히 여행 문학에 집적된 역사, 지리, 민속 등의 인문 지식과 여행문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작자집단과 시대의 멘탈리티를 여행문학의 가치로 꼽았다. 김미선(2019)는 ‘금강산 여행’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다양한 장르로 형상화 한 다양한 기행문학을 병치한 문학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장르별 특성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열하일기’를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총 178건이 검색되었다. 검색 결과는 엑셀을 활용하여 서지별로 정렬·목록화하고, 인용 텍스트 본문과 『열하일기』 해당 내용의 원문을 함께 정리하여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열하일기』 인용 텍스트는 크게 필자가 실제로 연행을 경험한 후 이를 기록하면서 연행 텍스트와, 연행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열하일기』의 정보를 자신의 집필에 활용한 텍스트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사례만 다루고자 한다. 또한 텍스트가 중복 검색된 사례, 연행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는 제외하고, 한 편에서 여러 인용이 나타난 경우는 한 편으로 통합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결과 총 178개 검색 자료 중 51편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3명이 회의를 통해 상호텍스트성을 도출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2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 각각 분류 기준을 도출한 후 회의를 통해 1차 기준을 협의하고, 기준에 따라 51편의 텍스트를 코딩하면서 1차 기준을 검증하였다. 코딩 결과 1차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텍스트나 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텍스트들이 있어, 다시 회의를 통해 분류 기준이 배타성을 지닐 수 있도록 2차 기준을 도출하였다. 각 텍스트는 2차 기준에 따라서 재코딩을 하고, 분류 기준을 텍스트 분석틀로 활용하여 연구자 간 분석 결과를 대조하며 교차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체 텍스트는 산천 지리·경관이나 현지 문화·풍속 등의 체험적 사실을 공유하는 텍스트와 연암의 사유에서 출발하는 논평을 공유하는 텍스트로 분류되었다.

## 2) 연구 대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열하일기』 독서 경험을 자신의 글에 드러낸 텍스트의 서지사항을 연행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대상	약어	필자(생물년도)	연행 시기
1	『관연록(觀燕錄)』	『관』	김선민(金善民 1772~1813)	1804년
2	『지정연기(芝汀燕記)』	『지』	원재명(元在明, 1763~1817)	1804년
3	『북경록(北京錄)』	『북』	신태희(申泰羲, 1800~1850)	1826년
4	『심전고(心田稿)』	『심』	박사호(朴思浩, 1784~1854)	1828년
5	『수사록(隨槎錄)』	『수』	한필교(韓弼教, 1807~1878)	1831년
6	『연원직지(燕輶直指)』	『연』	김경선(金景善, 1788~1853)	1832년
7	『몽유연행록(夢遊燕行錄)』	『몽유』	이유준(李遇駿, 1801~1867)	1848년
8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몽경』	서경순(徐慶淳, 1804~?)	1855년
9	『벽로집(碧蘆集)』	『벽』	김진수(金進洙, 1797~1865)	1832년

<표 1> 『열하일기』 인용 텍스트 목록

이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대상 텍스트는 연행 시기와 간행 시기가 19 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18세기 이후의 연행록은 ‘보고’를 위한 공적(公的) 창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 저술의 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연행록은 산천 경관과 풍속에 대한 개인적 경험의 술회와 더불어 연행에서의 관찰과 발견을 통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등 풍부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자의 사적 표현 욕구를 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sup>13)</sup>

12) 이하의 표에서는 각 문집의 제목을 ‘『열하일기(熱河日記)』→『열』, 『관연록(觀燕錄)』→『관』, 『지정연기(芝汀燕記)』→『지』, 『북경록(北京錄)』→『북』, 『심전고(心田稿)』→『심』, 『수사록(隨槎錄)』→『수』, 『연원직지(燕輶直指)』→『연』, 『몽유연행록(夢遊燕行錄)』→『몽유』,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몽경』, 『벽로집(碧蘆集)』→『벽』과 같이 약어를 활용하여 표기한다.

13) 19세기에 들어와 연행은 국가의 공식 업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특별한 유람으로 인식되는 정서가 강해진다. 또한 서세동점이 강화되고 청의 몰락이 진행되면서 연행록은 이전의 반청의식이나 이후 청나라로부터 선진적 문화를 배우려는 각성이 대두하던 것과는 달리 청나라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연행과 연행록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변화해가는 시점에 작성된 다수의 연행록에서 『열하일기』는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의 경계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연행록의 이러한 특성은 연행단에서의 필자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필자들은 공무에 대한 부담이 덜한 군관 또는 반당의 자격으로 연행 사절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북경의 곳곳을 유람하면서 많은 것을 관찰하고 필담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사귄 수 있었다.<sup>14)</sup> 김선민과 이유준은 ‘반당’, 신태희, 한필교, 김진수는 ‘군관’, 그리고 박사호는 ‘막비’로서 연행에 참여하였다. ‘서장관’이었던 원재명의 경우 같은 연행사의 ‘반당’인 김선민으로부터 자신이 알 수 없는 여러 지식과 정보를 전해 듣고 자신의 연행록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연행록은 삼사(三使)의 직분을 띤 이들의 연행록에 비해 풍부하게 사적 체험을 기술하고, 세밀하게 관찰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서경순(徐慶淳)의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다섯 편은 공식적인 연행 문서인 등록(騰錄)이 아닌 개인적인 기록으로 유람, 교우 관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공식 사행 중에도 보다 자유롭고도 자세한 견문이 가능했던 이들의 관찰과 기록은 삼사(三使)의 연행록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뒷받침하기도 한다. 동일한 연행에 반당으로 참여하였던 김선민의 『관연록』에 소략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빠진 내용이 서장관 원재명의 『지정연기』에 자세히 기록된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예이다.<sup>15)</sup>

이들 텍스트에는 『열하일기』를 비롯한 전대 연행록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많은 연행록들이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燕行日記)』,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의 『연기(燕記)』, 이기지(李器之)의 『일암연기(一菴燕記)』를 인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열하일

14) 17·18세기 대명사행(對明使行) 기록의 경우 서장관(書狀官)에 의한 공적 기록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18세기 이후부터는 공무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했던 서장관과 달리 기록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로우며 공무 수행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보다 자유로운 관광과 관찰이 가능했던 ‘자제군관’의 기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삼사(三使, 정사·부사·서장관)였던 사람들도 공적인 보고와는 별개로 연행록을 저술하였다. 김현미, 위의 논문, 2016, 331면.

15) 최식의 연구에서는 삼사의 수행원인 반당과 자제군관이 연행 지식·정보의 제공자 또는 전달자로서 연행록의 공동 필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최식, 위의 논문, 2018, 62-63면.

기』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위 텍스트들은 연행 중에 지나친 지방, 산천 풍경, 교유한 인물, 이국의 풍속과 문물들을 묘사하며 필요에 따라 『열하일기』의 내용을 전거로 활용하거나 인용한다. 연행록의 내용과 『열하일기』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연행록의 필자들은 이렇게 『열하일기』의 독서 경험을 자신의 글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열하일기』가 쓰인 시점과는 달라진 사실을 바로잡기도 하고, 『열하일기』의 내용에 덧붙여 자신의 소감을 밝히기도 한다. 또 『열하일기』와 동일한 텍스트를 인용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sup>16)</sup> 이처럼 이 연구에서 분석한 텍스트들은 모두 ‘연행’이라는 공통적인 경험을 매개로 『열하일기』에 대한 독자적인 수용을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단순한 사행 경험의 확장을 넘어서 사유와 사상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 3. 『열하일기』 수용 기록에 나타나는 기행문의 상호텍스트성

본 장에서는 후대의 문인들이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텍스트를 어떻게 공유하고 확장해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연행은 정형화된 노정에 따라 유사한 장소를 지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연행기 형식으로 기록을 누적하였다. 이후 연행자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고 본인이 독서한 내용을 떠올리거나 후에 돌아와 비교한 후 재생산하게 된다. 김경선은 『연

16) 김경선의 『연원직지』는 서문을 통해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燕行日記)』,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의 『연기(燕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세 연행록이 가장 방대하고 상세하기 때문에 인용한다고 밝히고 “『열하일기』의 자기 뜻에 따라 입론(立論)한 것을 본받아 기록하고, 그 당시의 기록과 다른 것은 별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서경순의 『몽경당일사』 역시 국경을 넘는 감회를 읊은 시, 연도의 풍경, 고사(故事)·유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다.

원직지』 서문에서 이러한 수용-재생산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연경(燕京)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행문(紀行文)을 남겼는데, 그중 3가(家)가 가장 저명하니, 그는 곧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다.

사례(史例)로 말하면 노가재는 편년체(編年體)에 가까운데 평순하고 착실하여 조리가 분명하며, 홍담헌은 기사체(紀事體)를 따랐는데 전아(典雅)하고 치밀하며, 박연암은 전기체(傳紀體)와 같은데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해박하다. 모두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어 각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이어 기행문을 쓰려는 자가 또한 어떻게 이보다 더 나올 수 있겠는가? 다만 그 연혁(沿革)의 변경으로 기록이 자연 맞지 않고, 답습(踏襲)의 상피(相避)로 자상함과 간략함이 간혹 현격하다. 참으로 두루 찾아보고 이리저리 대보며, 서로 참고하여 절충하지 않으면 그 요령을 얻을 수 없으니, 보는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결점으로 여긴다. … [中略]…

뒤에 이 사행(使行) 길 가는 사람이, 사괘(辭陞)로부터 북명할 때까지 언제나 일을 당하여 상고하고, 장소에 따라 참고하여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길을 안내하게 된다면, 혹은 그 간편함을 자랑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sup>17)</sup>

그는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글을 참고하여 연행록을 작성하였다고 밝혀두었고, 이런 작업들이 후대에 다시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이 서문

17) 適燕者多紀其行，而三家最著，稼齋金氏，湛軒洪氏，燕巖朴氏也。以史例則稼近於編年，而平實條暢，洪沿乎紀事，而典雅縝密，朴類夫立傳，而瞻麗閎博。皆自成一家人，而各擅其長，繼此而欲紀其行者，又何以加焉。但其沿革之差舛，而記載隨而燕郢，踏襲之互避，而詳略間或逕庭。苟非遍搜旁掘，以相參互而折衷之，則鮮能得其要領，覽者多以是病之。…『중략』… 後之有此行者，自辭陞暨反面，無日不臨事而攷閱，對境而參證，有如指掌之按行，則或可謂其簡便。而不爲無助也否。

은 전대의 연행록을 수용하면서 자기화된 개별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연행 지식을 수집 정리하여 확대·축소·재생산하는 양태를 잘 드러낸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수용·재생산 방식을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같은 장소를 경유하면서 겪는 비슷한 경험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기술 내용의 수용·생산이다. 이는 유사 경험의 공유들에서 자기 체험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논평의 수용·생산이다. 이는 의론을 수용하여 개인적 사유가 확장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 1) 기술(記述) 내용의 수용·생산: 경험의 공유와 체험의 확장

##### (1) 산천지리와 경관

경관(Landscape)은 한 지점에서 보이는 지표면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관이란 일정한 땅의 물리적 형태(보이는 것)에 시각 개념(보이는 방식)을 결합시킨 것이다. 경관은 철저하게 시각적 개념이다. 경관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에서, 보는 주체는 경관 밖에 위치한다.<sup>18)</sup> 경관이 일상 장소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일상 공간은 많은 것이 관찰자 내부 혹은 생활(life) 안에 존재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연행자들은 밖에 있는 관찰자로서 산천지리 및 건축물, 탑 등 즉 경관을 조망한 후 자신의 시각적 체험에 『열하일기』를 더하였다.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 시대순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는 텍스트를 일련번호로 표기하였으며, 각 텍스트의 중심내용을 [내용]이라는 머릿말을 붙여 기술하고, 수용 텍스트는 ‘\*’, 수용 텍스트가 인용한 『열하일기』의 원 텍스트는 ‘\*\*’ 기호를 활용하여 기술한다.

18) Tim Cresswell, *Place: a short of introduction*,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 프레스, 2012, 16-17면.

*수용 **원	내용 / *수용 텍스트 / **원 텍스트
1. *『북』 '북경록 단, 11/27 ** 6/24	[내용] '압록강'을 설명하며 『열하일기』가 인용한 전거를 그대로 활용 *『황여고(皇輿考)』를 살펴보니, "천하에 세 개의 큰 강 ...[略]... 이에 발원지 물결의 조종이 된다. [按皇輿考云, 天下有三大水...而鴨水乃得源波之宗] **『당서(唐書)』를 상고하면...[略]...압록강이라 한다.[按唐書...鴨綠江]
2. *『북』 '북경록 단, 11/28 ** 6/27	[내용] '책문'의 위치를 설명한 것이 유사. *책문 안에 인가 6, 70호...[略]...내지인은 변문이라 한다[柵內, 人家不過六七十戶, ... 內地人曰邊門] **압록강에서 여기가 120리...[略]...내지인은 '변문'이라 한다[該有一百二十里...內地人曰邊門]
3. *『북』 '북경록 단, 12/4 **요동백담기	[내용] '요동백담'을 보며 『열하일기』의 내용을 인용하고 시를 지음. *여기서부터는 백담이 보였다. ...[略]...마침내 절구 두 수를 지었다[自此白塔已見 ... 遂詠二絕曰] **관계묘를 나와 5마장도 채 못 가서 ...[略]...수재(인 듯 싶다)[出關廟行不半里 ... 蓋秀才也]
4. *『북』 '북경록 단, 12/7 ** 7/13	[내용] '영안교'라는 다리를 연암의 묘사와 흡사하게 기술함. *영안교~고보까지 수백여 리...[略]...먹줄 친 것 같다고 했다[自永安橋至古家堡...如引一繩云] **영안교부터 큰 통나무를 엮어...[略]...칼로 민 듯하다[自永安橋, 以連抱大木, ... 如一刀裁劃]
5. *『북』 '북경록 단, 12/17 **산해관기	[내용] '산해관'의 지리적 위치를 연암의 전고 인용까지 함께 수용하여 설명함. *대개 이 대의 기상을 살펴보니, ...[略]...갈석산을 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蓋觀此培氣狀 ... 禹貢稱狹右碣石是也] **산해관은 옛날의 유관인데, ...[略]...천하제일관이라는 현판을 붙였다.[山海關, 古榆關, ... 立扁曰天下第一關]
6. *『북』 '북경록 단, 12/20 ** 7/15	[내용] '무령한'을 지난 지리적 설명(동네 설명)을 가져오고, 구문을 살짝 변용함. *집과 시장의 점포, 전사의...[略]...10배에 그칠 뿐만이 아니다.[盧舍市舖進土牌額之繁華侈壯 ... 不啻十倍] **무령현을 지나자 산천이 더욱...[略]... 전날 들던 바와 같다[行過撫寧縣, 山川漸益開朗 ... 誠如前聞]
7. *『북』 '북경록 단, 12/23 ** A 7/16 B 7/29	A. [내용] '고수점(枯樹店)' 근처 풍경에 대한 묘사방식이 비슷함. *오후에 날씨가 청명하여 갑자기 ...[略]...그림자가 비추니 참으로 장관이다.[午後漸明 ... 倒影寫照, 眞壯觀也] **비단 정군만이 그러려니 할 뿐 ...[略]...모두 그림자가 거꾸로 비친다.[不惟縵裙然之 ... 皆倒影寫照] B. [내용] '송가장(宋家庄)'에 관련하여 전해 오는 이야기를 가져옴. *성의 둘레는 2리이다. ...[略]...오백 여명이라고 한다[城周二里 ... 尚五百餘人云] **연간에 송씨(宋氏)들이 쌓았다. ...[略]...오륙백 명이 된다 한다[皇明天啓間, 宋家所築也 ... 尚有五百餘人云]
8. *『수』 '유상수필', 천경사 ** 천경사	[내용] 연암의 기록에 남아있는 탑이나 불상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음을 밝힘. *천경사는 약왕묘 서쪽 수십 보...[略]...한가득 먼지만 쌓여 있을 뿐이다[寺在藥王廟西數十步...唯見塵埃之滿架而已] **약왕묘와 담장 한 겹...[略]...천순(天順) 3년 기묘에 세웠다[藥王廟舊壇 ... 寺建于皇明天順三年己卯]
9. *『연』 '출강록' 11/21 **6/24	[내용] 백두산은 강 세 개의 근원인데, 그 중 '압록강'에 대해 설명. *진정의 『양산총담』에 ...[略]...이름이 헛되지 않음을 안다[陳霆兩山叢談云, ...州以鴨名, 其以此徵] **산해경,에는 이를 '불함산'이라 하였고, ...[略]...고래에 있는 것을 압록강이라 부른다[山海經稱不咸山 ... 而北之在高麗曰鴨綠江]
10. *『연』 '출강록', 11/24	[내용] 연암이 봉황성=안시성이라 추론한 것을 "그 말이 꼭 이치가 있다."라고 동의. *『열하일기』에 "어떤 이가...[略]...꼭 이치가 있는 듯하다[燕記曰, 或曰此卽安市城也 ... 其說頗似有理]

**6/28	**때마침 봉황성을 새로 쌓는데 ...[略]...모두 빠지고 말았은 것이다.[方新築鳳凰城 ... 蓋闕如也]
11. *『연』, '출강록', 11/28 ** A 7/8 B.광우사기 C.산천기략	<p>A. [내용] 요동벌에서 '백담'이 보이는 장소에 이르러 연암이 이야기한 장소라 언급. *『열하일기』에 "마두 태복이 ...[略]...비로소 보이기 때문이다.[燕記曰 馬頭土伏也高巖... 至此始見故也] **태복이가 갑자기 국궁하고 ...[略]...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다.[泰卜忽鞫騎 ... 鄭進士馬頭也]</p> <p>B. [내용] 연암이 들른 '광우사'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이곳이 그곳인 듯하다고 상고 *『열하일기』를 고찰하건대 "광우사는 ...[略]...이 절인 듯하다.[按燕記 廣祐寺在白塔南 ... 似指此也] **백담 남쪽에 광우사라는 옛날 ...[略]...절이 황폐하여 중도 없다.[塔南有古刹曰廣祐寺 ... 今廢無僧]</p> <p>C. [내용] 요양 서남쪽의 '주필산'을 보고, 연암의 글을 인용. *『열하일기』에 다음과 같이 ...[略]...공을 기록하고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燕記曰 ... 勒石記功 改今名] **주필산은 요양 서남에 있다 ...[略]...주필산이라 이름을 고쳤다.[駐筆山 在遼陽西南 ... 改爲駐筆山]</p>
12. *『연』, '출강록', 11/30 ** A. 성경가람기 B. 7/10	<p>A. [내용] '성자사에 들러, 연암이 '성자사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 *『열하일기』에 "성자사는 ...[略]...지나며 들른다 한다.[燕記曰 聖慈寺 ... 必經過云云] **성자사는 승덕 2년 ...[略]... 사납고 험절해 보인다.[聖慈寺 崇德二年 ... 驚悍絕語]</p> <p>B. [내용] 연암은 마두의 수완으로 '심양행궁'을 보았으나, 자신은 못 보았음을 한탄 *목적 안에 3칸 파루가 ...[略]...않을 수 없으니, 꼭 한스럽다.[柵內有三間牌樓 ... 未免望門而退 殊可恨] **심양은 본시 우리 땅이다 ...[略]...어필로 옥하진제라 써 붙였다.[瀋陽本朝疆地 ... 御筆題曰玉虛真帝]</p>
13. *『연』, '출강록', 12/1 ** A. 성경가람기 B. 산천기략 C. 7/14	<p>A. [내용] '만수사에 들러 연암이 본 '파루', '편액이 없고, '가물도 일부 없다 기술. *『열하일기』에 "언제 장건했는지 ...[略]...있기도 없기도 하다.[燕記曰 未知何時所崩 ... 惟器玩或有或無云] **만수사는 강의 55년에 ...[略]...사납고 험절해 보인다.[萬壽寺 康熙五十五年丙戌重修 ... 驚悍絕語]</p> <p>B. [내용] 길을 가다가 본 산에 대해, 연암이 본 '개운산'이 아닐까 추정. * 연암의 '열하일기'에 "개운산(開運山)은 봉천부(奉天府) ...[略]...곧 이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熱河記云 開運山在奉天府西北 ... 未知今日馬頭之所指] **개운산(開運山)은 봉천부(奉天府) 서북에 있다 ...[略]...청(淸)의 소름이 있다 한다.[開運山 在奉天府西北 ... 卽淸之昭陵所在云]</p> <p>C. [내용] 연암이 말한 '영안교'가 가 보니 없어, 오래 개축하지 않아 매몰되었다 추측. *『열하일기』에 "여기서 고/까지 ...[略]...땅에 매몰된 것 아/까지[燕記曰 自此至今家子 ... 沒沒地底也] **지금은 청에서 자주 성적으로 ...[略]...일편문·이도정의 사이를 말한 것인 듯 싶다[今淸家數幸盛京 ... 似在一板二井之間也]</p>
14. *『연』, '출강록', 12/6 **7/18	<p>[내용] '사동바'를 대하는 청의 태도를 '관대하다고 한 연암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 *『열하일기』에 "비문 가운데의 ...[略]...다시 쓰지 않는다 한다.[燕記曰 碑文中奴酋二字 ... 不復書此云] **사동바 근처에 이르니, 길가에 ...[略]...사람들에게 그 가혹함을 드러냈다.[行到四司碑處 ... 以侈觀瞻瞻焉]</p>
15. *『연』, '출강록', 12/11 ** A. 강녕묘기 B. 장대기 C. 산해관기	<p>A. [내용] '강녕묘'에 이르러서, 강녕에 대한 정보 오류를 논증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 *『열하일기』에 "진 때에는 ...[略]...더욱 옳지 못하다"고 했다.[燕記曰 秦時地名 ... 尤爲非是云云] **진 나라 때엔 아직 섬이란 ...[略]...더욱 터무니 없는 말이다.[秦時未嘗稱狹 ... 尤爲非是]</p> <p>B. [내용] '장대'에 대해 연암이 한 말을 '정말 그러하다'라고 동의. *『열하일기』에 "만리장성을 보지 못하면 ...[略]...정말 그렇다.[燕記所云 不見萬里長城 ... 儘是眞語語也]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서는 ...[略]...위엄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不見萬里長城 ... 不識雄師之威尊矣]</p> <p>C. [내용] 연암이 '산해관'에서, '몽염'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호' 때문에 진나라가 망해 헛된 일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 *『열하일기』에 "봉성에서 여기까지 ...[略]...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하였다.[燕記曰 自鳳城千餘里之間 ... 亦奚足云哉云云] **봉성부터 천여리 사이에 ...[略]...무어라 말할 것이 있으리[自鳳城千餘里之間 ... 則吾於亦奚足云]</p>
16. *『연』, '출강록',	<p>[내용] '와비'에 대한 열하일기의 견문을 인용. *『열하일기』에 "전성문은 푸른 ...[略]...이 와비를 가리킨다.[燕記曰 前星門 覆以靑琉璃瓦 ... 指此以碑也]</p>

12/19 ** 전성문	**제인각으로부터 협화문을 나와 동화문을 ...[略..태자를 미리 세우지 않았다.]한다[自體仁閣出協和門與東華門相直 ... 自是不復豫建]
17. *연, '출강록', 1/6 **송복사	[내용] 연암이 '민중사'를 '송복사'라고 잘못 말했음을 기술. *연하일기에 송복사를 민중사라.[略..'송복사'기에 실었으니, 잘못이다.]燕記 以崇福寺爲憫忠寺. ... 載於崇福寺記 非也] **송복사는 본시 민중사 ...[略..그대로 남겼다.]崇福寺 本憫忠寺. ... 而中國人猶以千年舊蹟而不沒也]
18. *연, '출강록', 1/9 **어구/전성문	[내용] '어구'에 이르러 어떤 문을 보고, 『열하일기』를 상고해 전성문이라고 추정. *여기에서 동쪽으로 꺾여 수백 보.[略..요컨대 금자구역이라[又自此東折數百武... 而要之 禁地也] **황실 말을 먹이는 마방은 ...[略..골래를 벗고 제멋대로 있었다.]御廄在前星門外, ... 皆脫羈自在此] **제인각으로부터 협화문을 나와 동화문을 ...[略.. 이곳까지 이른 자가 없다.]한다[自體仁閣出協和門與東華門相直 ... 人無敢至者]
19. *연, '출강록', 1/11 ** A. 토원산 B. 홍인사 C. 대광명전	A. [내용] 연암이 쓴 '토원산'에 대해 인용하면서 생각하여 설명 *연하일기에 "높이 5, 6길에.[略..성곽을 내려다보게 했다.]燕記曰 高不過五六丈, ... 俯瞰城隅云云] **토원산은 일명 토아산 ...[略..과연 무슨 까닭일까.]兎園山 一名吐兒山. 有若荒山 墟者何也] B. [내용] '홍인사'에 대한 연암의 기술을 그대로 인용. *뜰 좌우편에 비석 둘을 ...[略..황제의 친열(親閱)에 대비한다고 한다.]庭左右對立兩碑 ... 以備親閱云] **홍인사 뒤. [略..바다로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弘仁寺最後一殿 ... 余謂此宋之陸秀夫抱帝赴海圖也] C. [내용] '인수사'에 대한 연암의 기술을 그대로 인용. *연하일기에 "전은 서안문 안.[略..아까에 자자 맹세했다.]燕記曰 殿在西安門內. 焚香刺臂以設誓云] **서안문 안에서 남으로 작은 골목을 ...[略..벌써 68년 전이지만 어제처럼 새롭다.]西安門內南小衙衙 ... 已爲六十八年, 而煥然如新]
20. *연, '출강록', 1/14 **대륙선호국사	[내용] '천불사'에 대한 연암의 기술을 참고해 예전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기물들에 대해 기술. *연하일기에서 "원 나라 ...[略..지금은 다 볼 수가 없다.]燕記言 有元丞相塑像 ... 今並不可見] **호국사는 도성 사람들이 불러서.[略..지금 와 보니 그렇지 않다.]護國寺 都人稱千佛寺, ... 今不然矣]

<표 2> 산천지리와 경관을 주제로 한 수용 텍스트

경관 묘사 부분은 주로 김경선, 신태희의 기록이 주를 이룬다. 이 표를 다시 주제별로 묶어보면 전거나 얽힌 이야기를 가져온 사례는 1, 5, 9, 10, 15-A, 15-C가 해당되고 『열하일기』의 기록을 보고 장소를 추정한 것은 11-B, 13-B, 18이다. 경관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 방식이 매우 유사한 경우는 2, 4, 6, 7-A, 7-B, 11-C, 12-A, 15-B, 16, 19-A, 19-B, 19-C이다. 과거와 다른 현재의 변화를 비교한 것은 8, 13-A, 13-C, 20이고, 기타는 3, 11-A, 12-B, 14이다. 17은 연암의 오류를 발견하여 지적한 것이다.

몇 개의 예시를 통해서 『열하일기』가 활용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번

①집과 시장의 점포, 진사(進士)의 패액(牌額)이 번성하고 화려하며 사치하고 장대하여 무령현(撫寧縣)과 비교하여 10배에 그칠 뿐만이 아니었다.<sup>19)</sup>

②무령현을 지나자 산천이 더욱 명랑(明朗)한 기운을 띠고, 성안 거리에는 집집마다 금편(金篇)·옥음(玉音)이요, 패루가 곳곳이 휘황찬란하다. 길 오른쪽 한 문 앞에 부사와 서장관의 하인들이 가마를 멎고 있다. 이는 곧 서 진사(徐進士) 학년(鶴年)의 집이다. 부사와 서장관이 지금 이 집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 하기에 나도 말에서 내려 들어가니, 그 집이 사치스럽고 그릇들의 진기함이 과연 전날 들던 바와 다름없다.<sup>20)</sup>

6의 ①은 신태희의 기록이고 ②는 연암의 기록이다. ‘무령현’을 지나며 본 동네에 관한 지리적 설명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 부분은 연암의 기록을 좀 더 요약하여 축소하여 수용하였다. 원문의 구절은 전혀 같지 않고 의미만 비슷하며 신태희 나름의 방식대로 변형하여 기록한 것이다. 두 사람 다 사치스럽고 번잡한 화려함에 주목하여, 거의 유사한 시각적 체험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13-A번

①연암(燕巖)의 『열하일기』에, “어느 때 창건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강희(康熙) 55년 병술년(1706, 숙종 32)에 중수(重修)했다. 절 앞에 큰 패루(牌樓)가 있는데, ‘만수무강전(萬壽無疆殿)’이라 편액을 하고, ‘요해자운강희 씬[遼海慈雲康熙書]’이라 편액을 했다. 전 안에는 향정(香鼎)과 보로(寶爐) 및 기타의 보완(寶玩)들이 있으나,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고 하였

19) 廬舍市舖進士牌額之繁華侈壯, 比撫寧縣, 不啻十倍.

20) 行過撫寧縣. 山川漸益開朗. 城裡街坊. 家家金扁, 玉音牌樓. 處處輝映. 路右一門下, 副三房下隸, 特轎留屯. 乃徐進士鶴年家也. 副使, 書狀方在此觀玩云, 余遂下馬進去, 其家舍僭侈, 器玩瑰奇, 誠如前聞.



다. 그런데 지금은 패루와 모든 편액들은 없어지고 오직 기물(器物)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이다.<sup>21)</sup>

②만수사(萬壽寺)는 강희(康熙) 55년 병신(丙申)에 중수하였다. 절 앞에 패루 하나가 있는데, 현판에는 ‘만세무강(萬歲無疆)’이라 하였고, 전각이 웅장하고 화려하기는 성자사를 능가하나 다만 뜰에 가득한 소나무 그늘이 없었다. 비석 둘이 있으며 정전(正殿)에는 강희황제가 쓴 ‘요해자운(遼海慈雲)’이란 액자가 붙어 있고, 향정(香鼎)이며, 보로(寶爐)며, 그 밖에도 보물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겠다.<sup>22)</sup>

①은 김경선의 기록이고 ②는 연암의 기록이다. 김경선은 연암의 기록을 참고하여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을 적어두었다. 연암이 간 시기에는 패루와 편액이 있었지만 50여년이 흘러 김경선이 간 시기에는 만수사도 세월의 풍파를 맞아 변화를 맞이했고 그 많던 보물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수사의 풍광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쇠퇴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경선은 “燕記曰”이라는 구문을 꼭 삽입하여 『열하일기』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두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신태희 『북경록』과의 차이이기도 하다. 다른 연행록들과 비교할 때, 김경선은 『연원직지』에서 『열하일기』를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다.

17번

①민충사기(憫忠寺記)

민충사는 일명 법원사(法源寺)라고 하는데, 광녕문(廣寧門) 안 채시(菜

21) 燕記曰, “未知何時所剏, 而康熙五十五年丙戌重修. 寺前有大牌樓, 扁曰‘萬壽無疆’, 額曰‘遼海慈雲康熙書’. 殿內有香鼎寶爐及他寶玩, 不可殫記云.” 而今無牌樓與諸扁, 惟器玩或有或無云.

22) 萬壽寺, 康熙五十五年丙戌重修. 寺前有一座大牌樓, 扁曰‘萬歲無疆’, 殿宇壯麗, 過於聖慈, 而但無滿庭松陰. 有二碑, 正殿康熙皇帝書額曰‘遼海慈雲’, 香鼎寶爐及他寶玩, 不可殫記.

市) 서남쪽, 남란면호동(南爛麵胡同)의 서쪽에 있다. 세상에 당 태종(唐太宗)이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올 때, 여기에 이르러 전의 일을 뒤우치고 곧 전사한 장병들을 위해 이 절을 지어 복을 빌 [薦福]었다고 전해 온다. 『송사(宋史)』에, “첩산(疊山) 사방득(謝枋得)이 원(元) 나라 지원(至元) 26년(1289, 고려 충렬왕 15) 4월에 연(燕)에 이르러 사 태후(謝太后 송이종(宋理宗)의 후(后))의 찬소(欗所) 및 영국공(瀛國公)의 소개를 묻고 두 번 절하고 통곡하였다. 원 나라 사람이 그를 민중사에 송치(送置)하였는데, 벽 사이에 있는 조아(曹娥)의 비문을 보고 강개(慷慨)하여 울며, ‘일개 여자도 오히려 그렇게 하였다.’ 하고 드디어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한다.

당나라 소영지(蘇靈芝)가 쓴 ‘보탑송(寶塔頌)’을 석각(石刻)한 감벽(坎壁)과 담계(潭溪) 옹방강(翁方綱)이 쓴 운휘비(雲麾碑)도 또한 감벽이며, 또 그가 쓴 『금강경(金剛經)』은 절 안에 간직되고, 성친왕(成親王)이 쓴 ‘찰나경(刹那頌)’ 세 글자는 글자가 크고 기이하며 구불구불한데 인중방(楯) 끝에 달렸으니, 모두 볼만한 고적이다.

연암의 『열하일기』에는, 송복사를 민중사라 하여, 당 태종이 절을 세운 일 및 사첩산(謝疊山)이 굶어 죽은 일을 ‘송복사기(崇福寺記)’에 실었으니, 잘못이다.

#### 송복사기(崇福寺記)

절은 정양문(正陽門) 밖 한길 동쪽 수 리쯤에 있다. 모든 전우(殿宇)의 장엄함은 다른 절과 같다. 그런데 절 안에 탑 2개가 마주 보고 있는데, 높이가 각각 10장(丈)쯤 된다. 하나는 안록산(安祿山)이 세운 것이요, 하나는 사사명(史思明)이 세운 것인데, 그 아래에 비석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장불공(張不矜)이 사사명을 위해 비를 세워 당 숙종(唐肅宗)을 칭송하고 이어 사명이 보좌한 공을 찬양하였으며, 소영지가 그것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비는 지금 있지 않다.

『고려사』에 “충선왕(忠宣王)이 대도(大都)에 이르자, 황제가 충선왕에게

머리를 깎고 석불사(石佛寺)에 살게 하였다.” 하였으니, 바로 이 절이라 한다.<sup>23)</sup>

②송복사는 본시 민충사(憫忠寺)이다. 당 태종(唐太宗)이 친히 요동을 정벌하고 돌아와 전쟁에 죽은 장사들을 불쌍히 여겨 이 절을 짓고 명복을 빌었다. 두 개의 탑이 마주 보고 있는데, 더러는, “안록산(安祿山 당 현종(唐玄宗)의 반신(叛臣))이 세운 것이다.”라 하였고, 혹은 “사사명(史思明)이 지은 것이다.” 라고도 한다. 높이는 각기 열 길씩이나 된다. 이렇게 두 역적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천년 고적이라 하여 그대로 남겨 두었다. 『송사(宋史)』에는, “사첩산(謝疊山)이 원(元)의 지원(至元) 26년(1289년) 4월에 연경에 이르러 사 태후(謝太后)의 빈소(殯所)와 영국공(瀛國公)이 있는 곳을 찾아 절을 하면서 통곡하며, 원의 사람들이 그를 민충사에 보내어 두었더니 벽 사이에 서 있는 조아비(曹娥碑)를 보고 울면서, ‘한 여인으로도 오히려 이렇게늘……’ 하고는 이어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라고 하였다. 또 장불공(張不肯)이 사사명을 위하여 당 숙종(唐肅宗 이형(李亨))을 찬송한 비문으로서 소영지(蕭靈芝)가 쓴 것을 찾았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나 이는 의당 주이준(朱彝尊 청(淸)의 학자. 자는 석창(錫鬯))의 변증으로 옳음을 삼아야 할 것이다. 『고려사』에는, “충선왕이 연경에 이르니 황제가 머리털을 깎아서 석불사(石佛寺)에 두었다.” 라고 하였는데, 혹은 이 절이라 하지마는 상세히 알 수는 없다.<sup>24)</sup>

23) 憫忠寺, 一名法源寺, 在廣寧門內菜市西南南爛麵胡同之西. 世傳唐太宗親征遼東, 失意而歸, 到此追悔前事, 乃爲戰亡將士, 建此寺以薦福. 宋史, “謝疊山以元至元二十六年四月, 至燕, 問謝太后殯所及瀛國公所在, 再拜慟哭. 元人送置憫忠寺, 見壁間曹娥碑, 慷慨泣語曰, ‘一女子尚爾, 遂不食死.’ 唐蘇靈芝所書, ‘寶塔鎮’ 石刻坎壁, 翁覃溪描雲麾碑, 亦坎壁, 又其所寫金剛經, 藏于寺中, 成親王所書‘刹那項’三字, 字大奇屈, 懸于楣端, 皆古蹟之可觀者也. 燕記, 以崇福寺爲憫忠寺, 以唐太宗建寺及謝疊山立殯事, 載於崇福寺記, 非也. (憫忠寺記)

寺在正陽門外大路東數里. 諸殿莊嚴, 與他寺同. 而寺中有兩塔對峙, 高各十許丈. 一是安祿山所建, 一是史思明所建, 其下有碑. 世傳張不矜爲史思明立碑, 頌唐肅宗, 而仍贊思明輔佐之功, 蘇靈芝書之云. 而碑今不在. 麗史, “忠宣王至大都, 帝使祝髮, 居石佛寺.” 卽此寺云. (崇福寺記)

김경선은 대부분 연암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식을 보여주었으나 이 부분에서는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②번 글에서 연암은 ‘송복사’에 관해서 쓴 글 중에 몇 가지의 전거를 이용하였는데, 김경선은 연암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그 중 몇 가지는 ‘송복사’에 관련된 것이 맞지만 다른 것들은 ‘민충사’에 관련된 것이라 밝혔다.(①) 연암은 ‘송복사’와 ‘민충사’가 동일한 장소라고 추정했으나 김경선은 다른 곳이라고 논증하여 시시비비를 가렸다. 안녹산과 사사명, 충선왕과 관련된 일화는 송복사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민충사와 관련되었다고 한 것이다. 지리적 위치 또한 서두에 밝혀 두 절이 다른 곳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단순히 『열하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본인이 실증하여 비판적으로 재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단순한 풍경 및 경관을 보면서 『열하일기』의 독서 체험을 결합하여 낸 결과물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비슷하게 적어두면서도 구문을 변형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축소와 확대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사실을 논증하여 지리적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 (2) 현지 문화와 풍속

연행록은 큰 의미에서 기행문에 속한다. 그러나 근대적 기행문과 구별되는 뚜렷한 변별점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와 비교해 18-19세기 연행록이 사적 기록의 성격을 띠는다고 해도, 연행의 일정에 속해있는 이상 공적 업무로서 겪는 여러 의례 경험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연암의 경험이 후대에도 반복되는 부분을

24) 崇福寺, 本憫忠寺. 唐太宗還自征遼, 哀憫戰亡將士, 爲建此寺以薦福. 兩塔對峙, 或“云安祿山所建.” 或云, “史思明所建.” 高各十丈. 要之兩賊所建, 而中國人猶以千年舊蹟而不沒也. 宋史, “謝疊山以元至元二十六年四月, 至燕京, 問謝太后攢所及瀛國公所在, 再拜慟哭, 元人遂置憫忠寺, 見壁間曹娥碑, 泣曰, ‘一女子尚爾.’ 遂不食而死.” 尋張不肯爲史思明頌唐肅宗碑, 蘇靈芝所書, 今無有. 然當以朱彝尊所辨爲正矣. 高麗史, “忠宣王至大都, 帝視髮置之石佛寺.” 或云此寺, 未可詳也. (崇福寺)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25, 26, 27, 30, 32가 이에 해당한다.

*수용 **원	내용 / *수용 텍스트 / **원 텍스트
21. * <sup>F</sup> 지 <sub>ㄴ</sub> '지정 연기권', 11/11 ** 7/15	[내용] 이해응, 홍대용, 박지원, 신태희, 원재명의 관련성으로 같은 차음을 사용하는 사례인데, 이는 연경을 가아만 알 수 있는 언어 공통성으로 보임. *수레를 모는 사람이 낙타 네댓 필을 몰아 뒤뜰에서 물을 먹고 있었다. [看車的駝四五延飲水] **말 모는 사람을 '칸처더[看車的]'라 부르며, ...[略]...채찍질하는 소리가 우레처럼 요란스럽다[引馬多至十餘匹, 御者號稱看車的, ... 震動如雷]
22. * <sup>F</sup> 북 <sub>ㄴ</sub> '북경록 단, 경성기략 **7/15	[내용] 이해응, 홍대용, 박지원, 신태희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수레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간처더[看車的]라는 같은 차음을 사용. *귀한 집의 부녀가 간혹 ...[略]...간처더가 그때마다 욕설 퍼붓기를 그치지 않는다[貴家婦女, 或乘轎垂帷 ... 趕車的輾駮罵不已] **말 모는 사람을 '칸처더라 ...[略]... 채찍소리가 우레처럼 요란하다[引馬多至十餘匹, 御者號稱看車的, ... 震動如雷]
23. * <sup>F</sup> 북 <sub>ㄴ</sub> '북경록 단, 12/20 ** 7/27	[내용] '진자점'에서 이름을 날린 유사사라는 인물을 연암의 기록을 통해 기억해냄. *일찍이 유사사[柳絲翁]가 이름을 날렸다고 하였다. [曾有柳絲翁擢名云] **유사사는 일찍이 열네 살부터 소리 잘하기로 이름을 날렸답니다.[柳絲翁, 擢名, 自十四歲能唱]
24. * <sup>F</sup> 심 <sub>ㄴ</sub> '연계기정', 2/16 **7/25	[내용] 중국음식 초란을 좋아하는 일행이 연암 때도 있었음을 떠올리며 지금을 비교. *길가 정방에서 파는 식품 중...[略]...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路旁店肆食品中, ... 旁人莫不捧腹] **"아까 초저녁 때 귀국 김 상공[金相公]이 ...[略]... 그들의 성명을 적어서 사려하였다.[哺刻貴國金相公來弊舖賣此, ... 錄其姓名以謝之]
25. * <sup>F</sup> 심 <sub>ㄴ</sub> '유관잡록', 괴물청 **만국진공기	[내용] 원송이에 대한 설명을 『열하일기』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유사하게 기술함. *괴란 상리와 다른 것을...[略]... 이는 남방의 산도이다[怪者, 異於常理之謂也, ... 此南方山都也] **처음 차를 모는 자의 모양이 ...[略]... 산도이다.'라고 한다[初驅車者, 形殊不類, ... 此山都也]
26. * <sup>F</sup> 수 <sub>ㄴ</sub> '문견잡지' ** A 8/14 B. '피서록'	A [내용] 조선통보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널 때 ...[略]...동전이 아님을 알 수 있다[使臣將度灣, ... 則可知其非久錢也] **나는 '옛날 제 태공이 경중 구부를 ...[略]... 설명했다.[苑園山, 一名吐兒山, ... 有若荒山墟落何也] B.[내용] 조선 사신단 등 외부에 대해서 지칭하는 '단어들'의 어원을 살핌. *대개 관직 없이 사행에...[略]...국호로 삼는다."라고 한다.[凡無官面從使者謂之, ... 以爲國號云] **"가오리가 온다. 가오리가 오네." ...[略]...예리하라고 부르는 따위가 곧 그것이다.[齊呼哥吾里來哥吾里來, ... 呼壯士爲曳落河者是也]
27. * <sup>F</sup> 연 <sub>ㄴ</sub> '출강록', 11/21 **A 6/24 B. 6/24	A [내용] 연암 당대에 압록강(국경)에서 금을 반출을 금하려 인마 점검이 철저했으나, 본인 대에는 '아이들 장난' 같다 말함. * <sup>F</sup> 열하일기』에 "인마 점검 ...[略]...좋은 수가 없다 한다[燕記曰, 方校閱人馬...而苦無良策之可驚云] **만은 벌써 장막을 치고 ...[略]...있고 없음이야 따질 것도 없었다.[灣尹已設幕出待, ... 其蓋銀奚論] B. [내용] 군회의 외양 및 '호령'이 있을 때 군회를 부르면 뜻 들은 척 하다가 10번 불러야 무어라 증얼거리며 허 차고하는 '행동까지 50여년이 지나도 변함없음'을 언급. *군회는 안주 의주에서 ...[略]...참 형용을 잘했다[軍牢, 安州, 善州各出一名, ... 真是善形容矣] **군회란 만부에서 가장 기운 센 ...[略]...막대 하나를 끌어 나간다[軍牢自灣灣選待最健者, ... 曳了一棍而去矣]

28. *연, 출강록, 11/22 **6/27	[내용] 책문을 지날 때 장사처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황, 이 상황의 시골벽적인 모습을 형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과 비슷하다고 기술. *국경 문의 여담은...[略]...세밀하였는지 알 수 없다.[邊門開闕, ... 何以—諦聽若是纖悉也] **역관 마두가 다투어...[略]...장사꾼끼리 서로 존대하는 말.[譯官及諸馬頭輩 ... 商賈相尊之稱也]
29. *연, 출강록, 11/23 **6/27	[내용] 책문 안쪽 '악가의 집에 들르면서, 연암이 만난 악가의 후손일지 생각함. *맑음. 책문에 머물렀다. ...[略]...그의 회목함이 가상하다.[晴, 留柵 ... 其敦睦可尙] **정사의 행차가 이미 악(鞞)의...[略]...원만한 가정이라 한다.[正使已入鞞姓家 ... 聞其子孫滿前云]
30. *연, 출강록, 12/14 **7/27	[내용] '이제묘'에 이르러, 건량관 마두가 고사리 숙채를 내놓지 못해 매를 맞은 일화를 연암의 글에서 떠올림. *사신의 행차가 옛날에는 ...[略]...폐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使行故事, ... 蓋今則供糞亦廢已久矣] **어제 이제묘에서 점심 먹을 때 ...[略]...깔깔거리고 웃었다.[昨日夷廟 中火時, ... 一堂哄笑]
31. *몽유, 동유연행록 하, 1/7 **8/10	[내용] 연암이 인용한 '황화요'를 재인용하고, 연암의 해석까지 자신의 글에서 인용. *중국 풍속은 또 승도를 중시 ...[略]...몽고에게 응하는 것 [北俗又重僧徒, ... 觀此則俱應於蒙古] **거리 아이들이 부르는 황화요 ...[略]...몽고를 두고 부름이다[又街兒市童所唱黃花謠, ... 俱應蒙古]
32. *몽경, 마지인정기, 10/27 **6/24	[내용] 의주에서 범을 경비하기 위해 하는 전례를 『열하일기』에서 읽었다 언급. *의주부에서 장막을 치고...[略]...우스워 몸을 가누지 못했다.[灣府設幕支站 ... 聞者莫不絕倒] **모든 노둔 친 곳을 돌아다니면서 ...[略]...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行視諸露屯處, ... 竟夜如此]
33. *백, 연경잡영 학당 제4수 **피서록	[내용] 조선어·한문은 불일치하나 중국은 언문일치로, '일상어'를 말해도 '시문'이 됨. *중국의 언어는 문사이니...[略]...사성통고를 찬술하여서 그 소리와 언어를 구별하였다[中華言語是文辭, ... 又撰《四聲通攷》, 以下其音言語] **중국 사람들은 글자로부터 말 배우기로 들어가고...[略]...정씨의 여중이 천고에 유식하기로 이름 높지 못한 것을 알았노라[中國因字入語, ... 未必與佛羅千古也]

<표 3> 현지문화와 풍속을 주제로 한 수용 텍스트

여기서는 32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32번

①의주부에서 장막을 치고 일행을 지공(支供)하였다. ...『중략』... 여러 막사(幕舍)가 잇달고 사람과 말이 요란한 것이 마치 행군(行軍)의 속사와 비슷하였다. 풍각(風角)을 울리는 것은 호랑이를 경계하기 위해서였으나, 때로는 그치기도 하였다. 한 비장(韓裨將)이 의주 군뢰(軍牢)를 불러서 꾸짖기를 “밤새도록 풍각을 울리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는데 어찌서 중단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소인이 그런 전례를 몰랐습니다.” 하였다. 한 비장이, “이는 전례이다. 내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보았는데, 네가 어찌서 모른다 하느냐?”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스워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sup>25)</sup>

② 『전략』… 이윽고 부사와 서장관이 차례로 이르렀는데 해가 이미 황혼이다. 30여 군데에 횃불을 놓되, 모두 아름드리 큰 나무를 톱으로 찍어다 먼동이 틀 때까지 환하게 밝힌다. 군뢰가 나팔을 한 마디 불면 3백여 명이 일제히 소리를 맞추어 고품치는데 이는 호랑이를 경비함이다.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군뢰란 만부(灣府)에서 가장 기운 센 자를 뽑아온 것인데, 이 일행 하인들 중에서 특히 일도 많이 하고 먹음새도 제일 세다고 한다.…『후략』<sup>26)</sup>

①은 서경순의 『몽경당일사』의 한 부분이고 ②는 『열하일기』의 내용이다. 조선에서 출발해 국경에 닿은 사신단들이 의주에서 겪은 일을 설명해 둔 것인데, 70-80여년의 시간 차가 있지만 풍각을 울려 호랑이를 쫓아낸 풍습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서경순은 한비장(韓裨將)이 한 말에서 이러한 관례가 『열하일기』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런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행사들이 겪는 공적 경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행기를 쓴 사람들만 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특수한 부분이다. 단순히 장소성만 같은 사적 여행기들의 상호텍스트성과 변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그곳에서 관찰하고 겪은 일 중심으로 중국 현지 일상 문화와 소소한 에피소드 등이 『열하일기』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경우 ‘의식주’로 설명되는 일반적인 삶의 양식 서술의 태도와 더불어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서술도 추가된다. 또한 ‘자신’이 경험하였다는

25) 灣府設幕支站。…『중략』… 列幕之連接，人馬之喧闐，有如軍行之止舍。而吹角吶喊，所以警虎也，時或間斷。韓裨招義州軍牢，而責之曰，“竟夜吹角，已有前例，胡爲乎間斷？”軍牢曰，“小人不知其例。”韓曰，“此例也。吾於燕巖熱河日記見之，爾何謂不知？”聞者莫不絕倒。

26) 『전략』… 良久副使書狀，次第來到，日既黃昏。設燎三十餘處，皆鋸截連抱巨木，達曙通明。軍牢吹角一聲，則三百餘人，齊聲吶喊，所以警虎也。竟夜如此。軍牢自灣府選待最健者，一行阜隸中，最多事而亦最多食云…『후략』

요소가 도드라져 이전과 다르게 감상을 비교적 비중 있게 서술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더불어 기존의 문자 기록에서만 읽었던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비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실제로 연행을 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언어문화는 21, 22, 26-B에 드러난다. 유사사나 장복(연암의 심복), 악가라는 인물은 연암의 사적 교류 대상인 인물들인데 그러한 특정 인물의 기억 공유까지 후대에 기록이 된다. 23, 29가 해당된다. 이는 『열하일기』의 경험이 독서를 통해 후대 기록자들에게 기억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 외로 현지 식문화에 대한 비슷한 경험(24), 『열하일기』에 나온 원숭이 기록을 상기하거나(25), 시끌벅적한 시내의 모습을 보고 느낀 개인적 소회 등(28)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일상성이 잘 드러나면서, 동시에 재수용의 오류가 나타난 사례이다.

#### 24번

①길가의 점방에서 파는 식품 중에서 오리나 거위의 알을 볶은 것이 많은데, 초란(炒卵)이라고 부른다. 운루가 술을 사면서 또 초란을 좋아한다. 내가 말하기를, “자네는 『연암기(燕巖記 열하일기)』를 보지 않았는가? 일행 중에 노 주부(盧主簿)라는 사람이 있어 초란을 즐겨하여 참(站)마다 사 먹었으므로, 일행 중에서 ‘노 초란’이라고 불렀다는데, 지금 자네를 ‘박 초란’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였더니, 곁의 사람들이 배를 쥐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sup>27)</sup>

②정군은 한어(漢語)가 서투르데다 또 이가 성기어서 달걀 볶음을 매우 좋아한다. 책문에 들어온 뒤로 늘 하는 한어라고는 다만 ‘초란(炒卵)’뿐인데, 그마저도 발음이 잘못되어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까 두려워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문득 ‘초란’ 하고 발음해 보아서 그 허끝이 잘 돌아 가는가를 가늠하였다. 그로인해 정(鄭)을 ‘초란공(炒卵公)’이라 부르게 되

27) 路旁店肆食品中，多炒鴨鵝卵，名曰炒卵。雲唐除酒，而又嗜炒卵。余曰，“君不見燕巖記乎？行中有盧主簿者，嗜炒卵，站站買喫，行中號曰‘盧炒卵’，今號子以‘朴炒卵’？”則奈何，旁人莫不捧腹。



었다.<sup>28)</sup>

이 부분은 초란(炒卵)이라는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즐기는 상황에 대해 적어둔 것이다. 초란은 계란을 볶아먹는 중국 음식이다. 박지원은 중국 식문화를 직접 맛보고 즐기고 그 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남겼다. 함께 간 일행 중에 초란을 즐겨먹는 자가 있어 별명을 붙여둔 이야기를 적어둔 것이다. 후에 박사호는 『열하일기』에서 초란에 관련한 일화를 읽었고 본인 또한 동행자 중에 초란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 이 경험을 공유하여 재생산하여 기록했다. 그러나 박사호는 정씨 성을 가진 자를 노씨로 착각하여 적어둔 것 같다. 일상성을 공유한 것은 맞으나, 수용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난 것이다. 일종의 기록의 오류이자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다.

지금까지 큰 시야로 밖에서 보는 관찰자로서의 경관구경, 실제 여정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연행사로서의 공적 체험, 더 깊이 중국 일상 및 풍습을 보며 사적 경험의 공유까지 연결되는 양태를 살폈다. 이처럼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줌-인(zoom-in), 줌-아웃(zoom-out)을 자유자재로 하며 만들어지는 독서의 재생산은 후대 기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는 공적인 여정을 공유하는 연행록이 가질 수 있는 재수용과 확장의 양상을 잘 드러낸다.

## 2) 논평(論評)의 수용·생산: 논제의 공유와 사유의 자기화

다음은 연행록 필자들이 연암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의론한 문장을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텍스트다. 필자들은 연암의 글을 자기 나름대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론을 펼친다. 의론하는 글은 적절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일의 정황을 합리적으로 살피는 글로, 논점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써야 하며 명백하고 철저하게 밝히는 등

28) 鄭君漢語甚艱，且齒齧，偏嗜炒雞卵。入柵以後，所肄漢語，只是炒卵，猶患出口齟，入耳聽瑩，故到處向人，輒呼炒卵二字，以試其舌頭利澀。因此號鄭爲炒卵公。

의 요건을 갖춘다.<sup>29)</sup> 여기에서는 필자가 자신이 의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의 의론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분석하여, 논을 수용한 텍스트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수용 텍스트의 주제는 크게 청의 문물을 소재로 경세론 등을 펼치는 논평과, 대청의식(對淸意識)을 포함한 연행 태도에 대한 논평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온돌, 모자·축양, 견마·축마, 수레 등 일상 소재를 바탕으로 한 논평, 삼액, 망국을 주제로 한 시, 성당에서 본 서양화 등의 문화를 소재로 한 논평 등이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청을 연행하는 태도에 대한 논, 북학론, 호곡장으로 알려진 텍스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텍스트들에는 요동 공간에 대한 태도, 요동으로 대표되는 청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의 태도 등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드러낸다.

### (1) 청의 문물을 소재로 한 논평

다음은 온돌, 모자·축양, 견마·축마, 수레 등 청의 일상 문물을 소재로 경세론을 개진하는 의론 텍스트들이다.

*수용 **원	내용 / *수용 텍스트 / **원 텍스트
34. *연, 『유관별록』 **7/5	[내용] 온돌의 여섯 가지 결점에 대한 『열하일기』의 논을 논지만 요약해 그대로 수용. *『열하일기』에 우리 온돌의 여섯 흠...[略]...이지 있는 말[燕記以爲東方煖制有六失 ... 此言亦有理] **우리 온돌 제도는 여섯 흠이 있으나...[略]...누울 수 있으니 어떠한가[東方煖制 有六失而無人講解...寢臥乎其上也].
35. *연, 『출강록』 12/9 ** 7/22	[내용] 모자·축양 제도 도입이 필요함. 연암은 '경제의 관점에서 양모 수입에 대해서만 비판적으로 논했으나, 김경직은 '축양까지 논해 해결 방안까지 제시. *『열하일기』에 "모자 만드는 법...[略]...밥을 대신할 만하다[燕記曰 造帽之法... 足以代飯故耳] **우리 털모자는 여기서 만든다...[略]...크게 주식을 대접한다[我國所着毳帽...大治酒食以接云].
36. *연, 『유관별록』, 금수	[내용] 조선의 견마법과 축마법을 비판한 논을 한 편의 글에서 다중 인용 *『열하일기』에 "한 강물을 아홉 번 건넜는데...[略]...태복이 알맞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燕記曰 一水九渡...而於太僕可謂得人矣]

29) 劉勰, 『文心雕龍』, 최동호 역, 『문심조룡』, 민음사, 1994, 302면.

**A 8/7 B. 8/14	**A 한 강물을 아홉 번...[喻]...건마 잡히지 않는 보람이 이와 같다[一水九渡...乃收不控之效如是哉] B. 우리나라가 가난한 것은...태복으로서는 알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國俗所以貧者...而於太僕可謂得人矣].
37. *연암, '유관별록', 기용 **거제	[내용] 연암이 수레를 중심으로 '유통' 문제가 논한 바를 동의하며 그대로 수용 *일용 기계들이 모두 정교하고 간편하며...[喻]...수천 년 동안 여러 성인이 고심한 것을 어렵듯이 나마 알 만하다[日用器械皆精利簡便...可少識千載羣聖人之苦心也] **수레는 천리로 이륙되어서 땅 위로 가는 것이며...[喻]...어렵듯이나마 몇천 년 모든 성인의 고심을 알 수 있겠다.[大凡車者 出乎天而行于地...亦可以小識千載羣聖人之苦心也夫]

<표 4> 청의 일상 문물을 소재로 한 논평 수용 텍스트

34와 35는 청의 문물을 소재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역설하는 글이다. 34는 '온돌'을 소재로 건축물과 연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논한다. 김정선은 박지원이 <도강록> 7/5 일기에서 조선 온돌의 6가지 결점을 논한 텍스트를 요약하여 제시한 다음 '역시 이치가 있는 말이다[此言亦有理]'라고 평하여, 연암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김정선이 '모자, 축양'을 논한 36은 연암의 의론을 바탕으로 필자가 사유를 확장한 내용을 담아, 텍스트의 주제와 초점이 확장하고 있다. 연암은 조선에서 청으로부터 수입한 '양모, 모자'로 인해 은이 유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정선은 연암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을 직접 기르는 것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축양이 흉년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역설한다.

36과 37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교통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6은 연암이 각각 <막북행정록> 8/7 일기와 <태학유관록> 8/14 일기에서 '말'을 소재로 논한 내용을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중 인용하는 텍스트다. <막북행정록>은 연암이 '일야구도하'할 때 말에서 위태롭게 댕던 시기의 경험을 다룬 글이다. 이 글에서 연암은 견마하는 과정에서 허식을 따르느라 위태로움을 만들어내며, 말을 다루는 방법이 복잡하지만 전혀 실익이 없는 방식임을 지적하고 조선에서 말을 타는 방법이 7가지의 위태로움이 있다는 점을 논한다. <태학유관록>에서는 말을 기르는 방법이 7가지의 한심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말을 다루는 법, 먹이는 법, 번식시키는 법 등이 말을 괴롭히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

이며, 축마하는 일을 경시하는 문화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정선은 이 각각의 텍스트를,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했으나 한 편의 글 내에서 같이 인용하는 결합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로 만들어냈다.

37은 ‘수레’를 소재로 물자의 유통에 관한 의론을 개진하는 글이다. 연암은 우리나라의 수레가 발전하지 않아 ‘유통’ 문제가 있음을 논하는데, 김정선은 이 텍스트를 약간 생략하여 그대로 인용하였다.

*수용 **원	내용 / *수용 텍스트 / **원 텍스트
38. * <sup>1</sup> 심, ‘유관잡록, 대수암이화’ ** 8/10	[내용] 명나라의 ‘삼액론-신체를 억압하는 죽액, 두액과 신체 건강을 해치는 구액을 언급, 그러나 박지원의 ‘청의 두액도 언급했으나, 이는 생략. *혹정 왕민호기[略]...이것은 또한 구액인데 세운이다.[王鶴亭民皞曰...這是口厄 亦一世運也] **혹정은 “남당 때 장소랑”...[略]...더한 변이 어디 있습니까[鶴汀曰 南唐時張宵娘.. 變莫大焉]
39. * <sup>1</sup> 수, ‘문견잡지’ ** 8/10	[내용] 명나라의 ‘삼액론-신체를 억압하는 죽액, 두액과 신체 건강을 해치는 구액을 언급, 그러나 박지원의 ‘청의 두액도 언급했으나, 이는 생략됨. *명나라 때에 이른바 ‘삼액이라는 것이 있었는데...[略]...이것이 ‘구액이다. (원문 이미지) **혹정은 “남당 때 장소랑”...[略]...더한 변이 어디 있습니까[鶴汀曰 南唐時張宵娘.. 變莫大焉]
40. * <sup>1</sup> 수, ‘문견잡지’ **피서록	[내용] ‘김석주 김창업 박지원이 객점의 시(망국하여 팔려간 신세가 된 ‘계문란의 시)를 보고 온 내용을 소개-박지원이 기풍액과 교류하며 이 시를 들려주고 기풍액이 연이어 지은 ‘사를 소개-망국 선비의 회한을 드러냄 *강희 계해년...[略]...천금이 있다한들 누구라서 채문희를 속할까[姜熙 癸亥...千金誰贖蔡文姬] **계문란의 시...[略]...천금이 있다한들 채문희를 속할소나[江右女子季文蘭...千金誰贖蔡文姬]
41. * <sup>1</sup> 연, ‘유관록, 12/22’ ** 양화	[내용] ‘서양화에 대해 논함. * <sup>1</sup> 열하일기]에 “무릇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略]...다만 그 화법과 교묘한 기술은 참고삼아 한 번쯤 보아 두는 것이 무방하다[燕語記曰, 凡爲畫圖者...但其畫法與諸般器物之奇巧者, 想堪一觀] **무릇 그림을 그리는 자가 거주만 그리고 속을 그릴 수가 없은 자연의 세(勢)이다...[略]...어쩔 바를 모르며 손을 벌리고서 떨어지면 받을 듯이 고개를 젓혔다.[凡爲畫圖者 畫外而不能畫裡者 勢也...仰首張手 以承其隳落也]

<표 5> 청의 정세에 대한 논평 수용 텍스트

38, 39는 신체의 삼액에 대한 논의를 수용한 텍스트다. 원 텍스트인 <태학유관록>에서는 연암과 대화하는 곡정 왕민호가 전족, 망건이 신체를 억압하는 죽액·두액이고, 신체 건강을 해치는 연초가 구액임을 언급한다. 이때 곡정이 연암이 쓰고 있는 망건을 두액으로 지적하자, 연암은 웃으면서 청의 통치 하에서 변발을 한 한족 선비 곡정의 변들거리는 이마를 가리키며 그 역시 두액임을 지적한다. 연암은 송, 명, 조선, 청을 가리

지 않고 신체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모든 통치 문화를 ‘액’이라고 보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38, 39의 수용 텍스트는 모두 곡정의 변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이러한 비판의식이 한결 무더진 양상으로 나타난다. 39는 한족 지식인의 망국 선비로서의 회한을 드러내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전체 『열하일기』의 맥락에서 볼 때, 연암은 당대의 대청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족 지식인을 통해 망국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더라도 회한보다는 갈등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논평한다. 그러나 『수사록』은 비판적 관점에서의 기술이라기보다, 보편 감정으로서의 회한을 다루는 차원에서 그친다.

40은 다른 문화에 대한 연암이 이 문화에 호기심을 드러내는 텍스트들을 수용한 글이다. 40은 연암은 성당에서 원근법에 의해 그려진 서양화를 접하고 경이로움을 드러낸다. 그러나 김경선은 연암의 견해와 달리 조정에서 서양 문물을 ‘음사’로서 다룬다는 점을 언급하고, ‘접하여 경험할 만은 하다’라고 논하여 연암보다 배타적인 태도로 접근한다. 이는 김경선의 시대에 청의 문물에 대한 배타성은 열어졌을지언정, 서양의 문물은 더욱 배타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는 소위 ‘오랑캐’를 바라보는 조선 지식인의 관념에서 북벌을 중심으로 한 의식은 희석되고 북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었으나, 그 외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논평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초점이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사유가 자기화되는 수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의 문물 등 이문물에 대한 연암의 견해 중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의 논평은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만, 연암이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던 문화적 측면은 배타적으로 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여 수용한다. 이는 북학론이 19세기에 화이론을 탈피하는 데는 실패하였음을 암시한다. 19세기의 대 중국의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북학을 부국의 차원에서 수용하려 했을 뿐 논리적인 정서성을 지닌 채 화이적 시각을 탈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sup>30)</sup> 이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 (2) 대청 등 타국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논평

다음 텍스트는 연행자들의 대청 의식이나 연행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논평이다.

*수용 **원	내용 / *수용 텍스트 / **원 텍스트
42. *『연』, '유관별록', 구경과 교유 **A. B. 『열』, '심세편' C. 『열』, '황교문답', '황교문답서'	<p>[내용] 연암의 '상사·중사·하사(북경의 장관은 기와와 거름)에 대한 논, 청에 대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여 연행에서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논, 타국의 정세를 살피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논 등을 한 편의 텍스트에 다중 수용</p> <p>*A 『열하일기』에, "우리나라 선비들이..[略]...『열하일기』에서 보지 못한 기이한 광경을 보충한다. [燕記曰, 我東人士, ...君行, 第一壯觀何物也..燕未見之奇觀也]</p> <p>B. 『열하일기』에, "중국을 유람하는 이의 다섯 가지 망령된...[略]...이로 인해 천하의 대세를 엿볼 수 있을 것임을 안다. [燕記, 遊中國者有五妄, ...此而得視天下之大勢也哉云云]</p> <p>C. 『열하일기』에 또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略]...전편을 옮겨 기록하여 고람(攷覽)을 갖추어 놓았다[燕記又曰, 入他邦者...故全篇移錄, 以備攷覽云云]</p> <p>**A 우리나라 선비가 북경에서 돌아온 이를 처음 만나면..[略]...그런 것들만이 장관이 아닐 것이다. [我東人士 初逢自燕還者, ...然後爲壯觀也].</p> <p>B.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노는 이로 다섯 가지 허망된 일이 있다...[略]...아마 이로 인하여 천하의 대세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燕職氏曰, 遊中國者有五妄...此而得視夫天下之大勢也]</p> <p>C.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略]...황교문답이라 한다.[入他邦者...爲黃教問答]</p>

<표 6> 대청 인식에 대한 논평 수용 텍스트

42는 『열하일기』의 <일신수필> 7/15 일기, <심세편>, <황교문답서> 등 각각 다른 3개의 텍스트를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루는 다중 인용 텍스트다. <일신수필> 7/15 일기는 연암이 북경의 장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사, 중사, 하사의 대답을 다룬 풍자적 논평으로, 장관은 기와와 거름에 있다고 보는 하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이다. 이 부분은 대체로 하찮은 것조차 활용하는 이용후생의 정신에서 칭조의 장관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sup>31)</sup> <심세편>은 직설적인 어조로 청에

30) 유미림, 『조선 후기의 대중국인식-승명과 반청, 그 이념의 실제』, 『국제정치논집』 41-4,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31) 이현식, 『『옥갑야화』, 교역 대상으로서의 청나라에 관한 이야기』, 『古典文學研究』

대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연행에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논하는 글이고, <황교문답서>는 타국의 정세에 관한 정보는 직설적이고 표상적인 문답에서 얻을 수 없으며, 그 내밀한 사정은 추론과 통찰은 통해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이다. 김경선은 연행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텍스트들을 다중 인용하면서 연행사로서의 책무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김경선이 서장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연암이 ‘도강록’ 7/8 일기에서 요동 들판에 대해 논한 소위 ‘호곡장’은 『지정연기』, 『연원직지』, 『관연록』, 『북경록』 등 4편의 글에서 인용하였다. 이 중 『지정연기』와 『관연록』은 ‘호곡장’만을 인용하고, 『연원직지』와 『북경록』은 연암의 다른 글과 함께 다중 인용한다. 단일 텍스트 중 가장 많이 수용된 소위 ‘호곡장’의 수용 텍스트들은 다음과 같다.

*수용 **원	내용 / *수용 텍스트 / **원 텍스트
43. *『지』 12/2 ** 7/8	[내용] 호곡장의 일부(요동벌을 처음 본 것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다)를 인용 *일행 중의 어떤 이가...[喟]...불경(不經)스러우나 한바탕 크게 웃을 만했다.[其人云..不敬也, 好發一大噱自] **내 오늘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시...[喟]...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소[吾今日始知人生本..只是蒼蒼 可作一場]
44. *『관』 12/2 ** 7/8	[내용] 요동 들판에서 ‘의주부윤이 말해주었던’ 요동 들판에 대한 論(호곡장)을 떠올리고, ‘전야하고 빼어난 논의’이며, 요동 들판은 ‘가장 웅장한 볼거리’라 평함. *‘요동의 큰 들판은 곡하기에 좋다...[喟]... 그러므로 그 말을 함께 기록하여 호사자에게 전하고자 한다.[遼東大野好一哭..故亦錄其語傳諸好事云] **내 오늘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시...[喟]...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소[吾今日始知人生本..只是蒼蒼 可作一場]
45. *『연』 ‘출강록’, 11/28 **A. 7/8 B. 7/10	[내용] 요동 들판에 이르러 ‘호곡장’과 ‘성경잡자’의 요양에 대한 글(요동벌이 항상 전쟁터였다는 점, 현재는 평화로우나 전쟁 대비를 하지 않으므로 청의 ‘한낱’ 근심으로는 남아 있음)을 함께 인용 *A. 마두(馬頭) 태복(太卜)이 땅에 엎드려 큰소리로...『중략』...오직 칭칭하니 한바탕 할 만하지[馬頭太卜伏地高聲曰..只是蒼蒼. 可作一場] B. 또 말하기를, ‘아아, 이곳은 영웅들이 온갖 싸움을 하던 땅이다..참으로 요동 들판에 대한 좋은 평이다[又曰, ‘噫, 此英雄百戰之地也..亦不可見..瀟灑乃其始興之地.]

	<p>**A. 태복(泰卜)이 갑자기 국궁(鞠躬)하고 말 앞으로 달려 나와서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중략』...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소[泰卜忽鞠躬 趁過馬首 伏地高聲曰...只是蒼蒼 可作一場]                  B. 멀리 요양성 밖을 돌아보니...[瞻]...청의 황제로서는 오히려 한낱 근심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回望遼陽城外...不得不爲清室一攢眉矣]</p>
<p>46. *『북』, 12/4                  A. 7/8                  B. '구요동기'</p>	<p>[내용]요동 들판에서 '호곡장' 중 '아이가 상쾌한 기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크게 운다는 인식을 표현한 구절을 한유의 '나리를 떠난 회한' 구절과 등치하고, 요동별의 '탁 트인 풍경 묘사 구절을 인용                  *A. 여기서부터 산해관까지 1400리에는...[瞻]...마침내 칠언절구와 오언율시를 읊조렸다. [A. 行半里 許...理或然矣 B. 自此至山海關 一千四百里. 遂詠七絕五律句]                  **A. 내 오늘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사...[瞻]...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 아니겠소[吾今日始知人生本...只是蒼蒼 可作一場]                  B. '구요동기'를 살펴보니...『중략』...스스로 그 성을 무너뜨렸구나[按舊遼東記...自壞其城], 요동의 구성(舊城)은...『중략』...어찌 후세의 기룡을 받지 않으리요[遼東舊城...惡可免後代之讎哉]</p>

<표 7> '호곡장' 수용 텍스트

『지정연기』는 연암이 광대한 요동 들판을 만난 심경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다고 논한 바를 요약하여 그대로 수용하면서, '불경하나 한바탕 웃을 만한 논'이라고 평한다. 『관연록』은 이 텍스트의 출처를 연암이 아닌 의주 부윤으로 언급하면서, 요동 들판은 웅장한 볼거리이고 이를 맞닥뜨린 사람이 갓난아기와 같은 심정이 된다는 것은 전아하고 빼어난 논이라고 평하였다.

『연원직지』의 필자인 김경선은 연행사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이 부분에서도 드러낸다. 김경선은 요동별이 항상 전쟁터였고, 현재는 평화롭더라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청의 근심이 됨을 언급하는 글과 함께 인용하여 요동의 가치와 요동에 내포된 긴장을 함께 표현한다. 『북경록』의 필자는 '호곡장'에서 '울 만한' 이유를 '회한'과 '상쾌함' 모두 언급하여 논지를 오해하여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연암이 <구요동기>에서 명이 충신들에 대한 모함을 받아들여 억울하게 죽게 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후세의 기룡'이 된다는 점을 함께 표출하고 있다. 특히 '호곡장' 인용 텍스트들은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나타났던데, 주제에 대한 해석, 주제의 초점을 확장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 수용 텍스트들에는 후대 독서자들이 사유를 자기화하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4.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기행문 수용·생산 교육

##### 1) 사실적 정보의 수용·생산: 공간 중심의 집단지성 형성

상호텍스트성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텍스트 요소를 공유하는 속성을 가리킨다. 공유 요소로는 ‘기호, 낱말, 문장, 문단, 텍스트, 구조, 관습, 형태’ 등의 형식적 부분과, ‘관점, 논리, 화제, 주제, 내용, 의도, 지향’ 등의 내용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sup>32)</sup> 연행을 하는 필자들은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경로를 경험한다. 따라서 연행록들은 연행 ‘공간’을 중심으로 한 대한 ‘지식-정보’들을 공유한다. 산천지리와 경관 등의 자연물에서 현지 문물·풍속과 같은 문화적 대상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아우르는 이 지식·정보들은 연행록들에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적 요소들인 것이다. 다음 표는 3장 1절을 통해 도출된 상호텍스트적 요소들을 제시한 것이다.

산천지리와 경관	현지 문화와 풍속
압록강, 책문, 요동백담, 영안교, 산해관, 무령현, 고수점, 근경, 천경사, 백두산, 봉황성, 요동별, 광우사, 주필산, 성자사, 심양행궁, 만수사, 개운산, 사동비, 강녀묘, 장대, 산해관, 와비, 민충사, 전성문, 토원산, 홍인사, 인수사, 천불사기	언어(간처더, 가오리, 화어의 언문일치 등), 인물(유사사, 약가), 음식(취향초란), 기이한 동물(구경(원숭이), 화폐(조선통보), 사행 절차(인마 점검, 군뢰의 행동, 이제묘 행사, 호환 대비), 가요(황화요)

<표 8> 상호텍스트적 요소

위 표는 연행록의 상호텍스트성이 압록강 등의 자연 공간과 책문 등의 인공물, 물리적 소재에 함의된 관습·풍속·문화 등의 공유 요소를 중심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열하일기』를 인용한 연행록들은 산천 경관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문물과 풍속(風俗)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필자들은 『열하일기』의 견문을 수용하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본인의 연행 경험을 구체화한다. 이를테면 연암이 『열하일기』에 언급

32) 김도남, 「읽기 상호텍스트성의 기제와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4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9.

한 장소를 지나는 등 연행 일정 중 보거나 듣거나 행한 것과 유사한 체험을 하게 된 경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행록은 장르의 특성상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의해 수집·정리된 지식·정보가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열린 텍스트(Open Text)’로서의 성격을 지닌다.<sup>33)</sup> 연암이 연행 과정에서 다양한 자연적, 문화적 대상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소회를 세밀한 필치로 기록한 『열하일기』는, 연암과 유사한 노정을 경유하고 체험한 연행록의 필자들이 독서 경험을 환기하여 자신의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바탕이 된다. 연행자로서, 연행록을 수용하는 독자들은 기술된 사실적 정보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는 비교의 사고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필자로서는, 공통점은 선행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없애지거나 변해버린 점에 대해 설명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한 장소에 대한 여러 연행자들의 경험이 겹겹이 형성된다.

이러한 연행록의 수용·생산 과정은 기행문학 교육에서 수용·생산 교육 과정으로 치환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지리문화적 정보를 중심으로 집단 지성을 구성해 나가는 수용·생산자로서, 선행 텍스트 필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한편, 차이가 나는 지점을 발견하여 변화상을 기술하는 발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 시대의 많은 학습자들은 연행 여정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연행 공간에 대한 현재의 공간·지리 정보들을 문자·사진 등의 이미지·영상 등으로 디지털 공간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연행록의 필자들이 제시한 대상을 체험하며 스스로의 인식과 비교하고, 자신만의 디지털 여행기나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33) 최식, 위의 논문, 2018.

사회문화적으로도 현대의 학습자들을 집단지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의 참여자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닌다.

『열하일기』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온라인에서 나와 같은 장소를 여행한 타인의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대의 독자들이 여행 체험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유효하다. 같은 공간을 여행하지 못했더라도 이 시대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실재를 그대로 가상에 구현한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독서 교육에서는 독자들이 ‘상호텍스트적 기제’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내재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제를 이해시키고 활용하는 교육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관점에서 기행문학을 교육할 때는 현대의 독자들이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경험하고 선행 텍스트에 기술된 지식과 정보와 비교하면서, 그대로 수용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점을 짚거나, 잘못된 지식-정보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공간을 중심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과정 참여자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 2) 사유의 수용·생산: 공간 중심의 문화적 기억 형성

여행자들은 지식-정보를 확인하고 체험에 활용하는 경험 외에도 장소로부터 촉발된 사유를 공유하기도 한다. 다음은 『열하일기』 인용 텍스트에서 논평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행록의 저자들이 연암의 사유를 수용하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34) 김도남, 위의 논문, 2009.

원 텍스트 주제	텍스트	주제 수용 양상
온돌을 소재로 조선이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진단	『연』	[주제 유지]텍스트 그대로 반복
양모 수입으로 인한 조선 은의 유출이라는 문제 진단	『연』	[주제 확장]텍스트 그대로 반복+자신의 논평 텍스트 첨가 -문제 진단에 동의하며 나아가 '축양'이라는 해결책 제안
1. 조선 견마 방식의 문제 진단 2. 조선 축마 방식의 문제 진단	『연』	[주제 확장]『열하일기』의 2개 텍스트 결합 -소재를 중심으로 문제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
수레에 나타나는 조선 물자 유통의 문제 진단	『연』	[주제 유지]텍스트 그대로 반복
신체를 억압하는 관습통치 요소 비판	『심』	[주제 축소]텍스트 중 일부 삭제 -다면적 비판 의식 약화
망국 회한을 담은 시를 중심으로 회한과 사회적 갈등으로서의 망국에 대한 논	『수』	[주제 변이(조점 변화)]텍스트 그대로 반복 -회한만을 다룸.텍스트는 동일하나, 각각 앞뒤에 병렬된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함의되는 주제가 일부 변화
원근법으로 표현된 서양화의 신기함	『연』	[주제 변이]텍스트 그대로 반복+자신의 논평 텍스트 첨가 -경계해야 할 음식으로서의 서양화
텍스트 1. 북경의 장관을 찾는 선비의 태도에 대한 논 텍스트 2. 연행 태도에 대한 논 텍스트 3. 타국 정세를 살피는 방법에 대한 논	『연』	[주제 확장]『열하일기』의 3개 텍스트 결합 -소재를 중심으로 문제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공간으로서의 '요동발'	『지』	[주제 변이]텍스트 중 일부만 요약 인용 -새로운 공간에 대한 태도를 함의한 텍스트의 주제를 상실하고 발상의 괴이한 점에만 초점화.불경스러우나 웃을 만하다 평
	『관』	[주제 변이]텍스트 중 일부만 요약 인용+들려준 이(의주부윤)의 논평 텍스트 첨부 -텍스트 원 생산자 왜곡, 텍스트 전승자의 논평 첨부 변민을 풀어낼 장소로서의 요동발
	『북』	[주제 변이]텍스트 중 일부 요약 인용+다른 텍스트(한유에 대한 글)를 함께 인용병치+자신의 논평 텍스트 첨가 -회한과 탁 트인 풍경 묘사
텍스트 1.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공간으로서의 '요동발' 텍스트 2. 전쟁 장소로서의 요양에 대한 논평	『연』	[주제 변이확장]『열하일기』 2개 텍스트 결합 -요동 공간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의미 인식

<표 9>후대 연행록의 주제 수용

『열하일기』와 후대의 연행록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따라서 국외 정세를 비롯하여 조선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연암의 연행과 후대 연행록 저자들의 연행에는 그 시기상의 차이로 인해 대청관, 서양 문물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후대 연행록 필자들은 연암이 연행길에 포착하고 조선의 상황과 연계하여 논평한 내용들을 자신의 저술에 공유하면서 주제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선행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글들은 선행 텍스트의 논평에 대한 동의의 바탕으로 형성된 텍스트들이다. 한편으로는 연암의 의론을 단순히 인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제를 변이·확장시키는 등 사유를 자기화하는 과정들도 드러난다. ‘축양’, ‘삼액’에 대한 『연원직지』의 언급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김경선은 박지원의 논의 방향을 수용하면서도, 논지의 초점을 다른 부분에 두거나, 『열하일기』의 각각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3개 이상의 텍스트를 병치함으로써 하나의 주제로 연결하여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암의 글을 인용한 후 자신의 사유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논평하거나, 사유를 확장하는 과정을 메타적으로 기술하기도 하고, 다수의 글을 인용하며 저자 나름대로 주제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선행 연행록인 『열하일기』의 주제는 공유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사유의 자기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독자로서의 연행자가 장소로부터 촉발된 사유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상호텍스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호텍스트성’은 1966년 크리스테바(Kristeva)의 ‘Word, Dialogue and Novel’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이다.<sup>35)</sup> 크리스테바는 모든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는 관계성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자신의 작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다른 텍스트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작품에 대

35) J. Kristeva. *Word, Dialogue and Novel in The Kristeva Reader*, ed. Moi T., Columbia UP: New York, 1966.

한 작가가 개인의 통제력을 넘어, 작품이 어떻게 수용되고 다른 텍스트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문학교육에 있어서 상호텍스트성의 활용에 주목한 암스트롱·뉴먼(Armstrong & Newman)은, 중등 이후 발달 읽기 과정의 핵심 읽기 텍스트가 핵심 읽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발판으로 만드는 추가 텍스트로 보완되는 상호텍스트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교수자가 학습자를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 명시적으로 안내할 경우, 학생들은 읽고 있는 것과 주제에 대해 이전에 읽은 것 사이의 연결 또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학생이 연관, 융합, 비평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36)</sup> 선행연구에서는 『열하일기』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연행록들 간의 비교에 대한 연구에서 “흔히 열하일기에만 특유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실은 여러 연행록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하며 『열하일기』를 그 이전에 창작된 수많은 연행록의 ‘전통’을 배경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sup>37)</sup> 『열하일기』와 그 인용 텍스트들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며 읽는 현대의 학습자들은 연관, 융합, 비평을 통해 하나의 저작에 대한 이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문학교육 현장에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독자·필자들이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것을 매개한다.<sup>38)</sup> 아스만은 문화적 의미의 전승과 관련된 ‘문화적 기억’을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활성화적 기억으로서의 ‘기능기억’과 이러한 활성화적 관계를 상실한 ‘저장기억’으로 분류하면서, 언어 등의 매체가 “문화적 기억을 공고히 하고 에워싸

36) Armstrong S. and Newman, M. *Teaching Textual Conversations: Intertextuality in the College Reading Classroom*,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41, 2010.

37) 김명호, 위의 논문, 1988.

38)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7.

는 물질적 버팀목이며, 인간의 기억들과 교호작용을 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39)</sup>

후대 연행록의 필자들은 연암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이지만 연암의 텍스트를 수용, 변형, 생성하는 상호텍스트적 기제를 바탕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선행 텍스트를 인용하며 기행문학을 수용·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인 정보에 대한 기술하는 것은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선행 텍스트의 논평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식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은 공간에서 촉발된 사유를 매개로 한 문화적 행위로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열하일기』라는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논평에 대한 인용은 경제(經世)에 대한 비평과 통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의 텍스트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의 수용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독자들은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텍스트를 선택하고 융합하여 구성한다. 하나의 주제를 다른 주제로 전치하기도 하고, 승화시키기도 한다.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 문학교육은 독자가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공백을 채우는 정교한 추론 능력을 발달시킨다. 나아가 ‘서로 다른 텍스트의 병치’를 통해 다양한 고전문학 텍스트를 관련성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다. 즉 어떤 텍스트가 병치되고, 누가 이를 주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병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며, 그 의미와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텍스트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sup>40)</sup> 따라서 상호텍스트성은 단순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병치를 통해 인식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다.<sup>41)</sup> 나아가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기행문학 교육에서는

39) 이광복, 위의 논문, 2007, 34면에서 재인용.

40) D. and Egan-Robertson, A. The Social Construction of Intertextuality in Classroom Reading and Writing Lesson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8-4, 1933.

41) Bloom, D. and Egan-Robertson, A. *The Social Construction of Intertextuality in*

독자로서의 연행록 필자들이 사유의 자기화하는 상호텍스트적 과정을 메타적으로 관찰하고, 스스로의 수용·생산 행위 역시 연행록을 중심으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연행록은 필자들이 ‘타자’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sup>42)</sup> 기행문은 본질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공간과 문화에 대한 여행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연행록의 수용·생산 과정을 기행문학 교육 전반으로 확대했을 때, 학습자가 스스로 기행문을 읽고 쓰는 행위의 의미를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기행문은 여정을 통해 촉발되는 자신의 사유를 표현하는 텍스트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같은 공간이나 문화권 내에서의 인식 비교, 혹은 다른 공간이나 문화권에서의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기행문학의 생산과 수용을 지도하며, 다중 텍스트를 활용하여 공간을 매개로 한 사유를 비교하며 자신의 사유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열하일기』 인용 텍스트에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이 연행록의 독자이자 필자로서의 후대 여행자들이 기행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보고, 연행록의 수용·생산 사이에서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연행’이라는 공통적인 경험을 매개로 자신의 저작을 통해 『열하일기』를 적극적으로 독자적으로 수용하고

---

*Classroom Reading and Writing Lesson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8-4, 1933, 308.

42) 김현미, 「연행록 문학 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대동한문학』 34, 대동학문학회, 2011.



있는 9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품의 저자들이 선대의 연행록인 『열하일기』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는 양상과 방향을 밝혔다.

선정한 작품의 분석 과정에서 19세기 후반의 연행록들에서 『열하일기』를 비롯한 전대의 연행록을 독서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열하일기』의 독서 기록이 많이 나타났다. 연행록의 필자들은 『열하일기』를 비롯한 전대의 연행록을 참고하여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고, 이전에 쓰여진 연행록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고 인식과 사유를 확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지식-정보의 수용과 논평의 수용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연행록의 필자들은 모두 『열하일기』의 수용자이자 자신의 글을 구성하는 생산자이다. 이들은 전대의 연행록 독서를 통해 자기의 체험을 비교하고 사유를 확장하고 자기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상을 자신의 저술을 통해 드러냈다. 지리·풍속 체험을 수용한 텍스트는 경관 구경, 일상 및 풍습, 연행사로서의 공적 체험 등을 선행 텍스트와 공유하면서 확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논평 수용 텍스트는 연암이 포착한 청의 문물과 제도, 정치적 상황, 조선의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면서, 논지의 초점을 다른 부분에 두거나, 다중 인용하거나, 텍스트를 논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제를 자기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같은 공간을 여행하면서 사실적 정보를 수용·생산하는 필자들이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공간에서 촉발되는 사유를 중심으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 참고문헌

<자료>

김경선, 『연원직지(燕輓直指)』

김선민, 『관연록(觀燕錄)』  
김진수, 『벽로집(碧蘆集)』  
박사호, 『심전고(心田稿)』  
서경순,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신태희, 『북경록(北京錄)』  
원재명, 『지정연기(芝汀燕記)』  
이유준, 『몽유연행록(夢遊燕行錄)』  
한필교, 『수사록(隨槎錄)』

(문집 자료는 한국고전번역원(db.itkc.or.k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논저>

- 김도남, 「읽기 상호텍스트성의 기제와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4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9.
- 김명호, 「연행록(燕行錄)의 전통과 『열하일기(熱河日記)』」, 『韓國漢文學研究』 11, 한국한문학회, 1988.
- 김미선, 「선조들의 금강산 기행문학과 그 교육적 활용」, 『어문논총』 35,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 김성룡, 「박제가 기행문의 문예 미학 연구-기행문 교육의 심화를 위하여」, 『고전문학과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안시성(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漢文學報』 31, 우리한문학회, 2014.
-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洌上古典研究』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 김정경, 「18세기 한글본 연행록 연구 - 정녀묘와 천주당 견문기록을 중심으로 -」, 『洌上古典研究』,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
- 김종철, 「중세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김현미, 「연행록 문학 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대동한문학』 34, 대동

- 학문학회, 2011.
- \_\_\_\_\_, 「18세기 한문 산문 연행록 속 ‘풍속’ 요소의 인지와 범주», 『漢文古典研究』 33-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 백순철, 「여행체험 고전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의의」, 『비평문학』 37, 한국비평문학회, 2010.
-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韓國漢文學研究』 51, 한국한문학회, 2013.
- \_\_\_\_\_, 「조선후기 연행사의 중국 명산 유람 양상과 특징」, 『津橋語文研究』 40, 반교어문학회, 2015.
- \_\_\_\_\_, 「연행사와 양한적(養漢的)-역관·사상이 접한 중국의 창루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 유미림, 「조선후기의 대중국인식-승명과 반청, 그 이념의 실제」, 『국제정치논집』 41-4,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2007.
- 이현식, 「『옥갑야화』, 교역 대상으로서의 청나라에 관한 이야기」, 『古典文學研究』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임영길, 「19세기 전반 연행록의 특성과 조청 문화 교류의 양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 주재우, 「고전기행문학과 경험 교육-〈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정훈식, 「조선후기 燕行錄에 기록된 청대 風俗 인식의 추이 : 김창업·홍대용·박지원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87, 한국문학회, 2021.
- 최 식, 「텍스트로 바라본 연행과 연행록-연행의 체험과 향유」, 『大東文化研究』 8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_\_\_\_\_, 「연행 지식·정보의 수집·정리 및 확대·재생산 - 연행록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75, 동방한문학회, 2018.

\_\_\_\_\_, 『『열하일기(熱河日記)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실체(實體) -삼역(三厄)의 기원(起源)과 변모양상(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회, 2019.

허 방, 「철종시대 여행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劉勰, 『文心雕龍』, 최동호 역, 『문심조룡』, 민음사, 1994.

Tim Cresswell, Place: a short of introduction,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Armstrong S. and Newman, M. Teaching Textual Conversations: Intertextuality in the College Reading Classroom,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41, 2011.

Bloom, D. and Egan-Robertson, A. The Social Construction of Intertextuality in Classroom Reading and Writing Lesson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8-4, 1933.

J. Kristeva. Word, Dialogue and Novel in The Kristeva Reader, ed. Moi T, Columbia UP: New York, 1966.

논문투고일자: 2022.02.02. / 심사완료일자: 2022.02.13. / 게재확정일자: 2022.02.28.

## Abstract

Teaching travel literature through intertextuality within Yeonhaengrok: critical responses to 'Yeolha Ilgi' in later Yeonhaengrok

Suh, Mi-hwa, Choi, Gigi, Lee, Jee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textuality revealed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and producing Yeonhaengnok, and to suggest educational content for travel literature courses based on this. To this end, texts (travel journals) that cite 'Yeolha Ilgi (熱河日記)'—written by Park Ji-won (朴趾源) (Yeonam [燕巖])—were analyzed with a view to categoriz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responses, and specifically those that relate to the common experience of 'enactment'. These texts represent a process of responding to and producing works in which future performers share and expand their experiences and thoughts through reading. This study proposes that studying them in this way can transform the intertextual approach (based on response and consequent production) into travel literature instruction.

The texts considered here a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how they accept information from 'Yeolha Ilgi (熱河日記)' (such as details about geography and customs) and how they analyze opinions expressed in the prior text (for example, discussions of controversial topics such as government theory and how the Choson dynasty responded to the Qing dynasty). Narrative texts that engage with information from 'Yeolha Ilgi (熱河日記)' develop this by sharing details about landscape viewing, daily life, and

customs, as well as recounting public experience as a performance event that refers to the precursor text. Texts that analyze opinions from the precursor text share evaluations of how Yeonam depicts Qing culture and its systems and compares this to the Choson's political situation. These texts also focus on other parts of Yeonam's thesis, quoting it multiple times or commenting on and amplifying key issues. Drawing on these responses, this study proposes educational content that focuses on how knowledge and information can be shared and developed among writers traveling in the same areas.

Key words: Yeonha Ilgi(熱河日記), quoted text, intertextuality, travel literature education